도로명주소의 모든것 www.juso.go.kr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999 ← 1 대한대로 Daehan-daero

2014년 1월 1일부터
관공서·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할 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편, 택배, 인터넷쇼핑 등 일상에서도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로 생활하세요!

중앙로 6
중앙로 8

세종대로 Sejong-daero 209 → 도로명 → 건물번호

도로명주소란?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쉽게 표기하는 주소입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지번주소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양잠리 19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3-10 ○○아파트 □□동 △△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적돌길 100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동 △△호(서초동, ○○ 아파트)

NO.234
Korea.kr/gonggam
2013.11.25

자유학기제 시행 성과 "수업에 흥미 없던 아이가 달라졌어요"

기획특집
금융감독원 "취약계층 위한 금융안전망 더 촘촘하게"

2017년 FIFA 'U-20 월드컵' 유치 12월 5일 판가름

서민대출은 희망의 계단

김만석
('새희망홀씨' 이용수기
대상 수상)

Q 인천국제공항부근에 자리잡은 중소 화물운송업체에서 근무하는 43세 직장인입니다. 2010년 1월에 결혼한 뒤 둘의 한 달 수입을 합쳐 고작 200만원에 불과한 맞벌이 부부입니다.

결혼 당시 이곳저곳에서 급하게 끌어다 쓴 빚(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에 대한 상환 금액과 월세를 합쳐 한 달에 12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고, 나머지 70만~80만원으로 근근이 끼니만 이어갔습니다. 자연히 아내와 싸우는 횟수도 늘게 되었습니다. 카드 돌려막기와 분할상환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한 달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하기에 '어떻게 하면 이자도 싸고 분할상환도 하지 않는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매번 딱지를 맞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은행에서 '새희망홀씨' 홍보포스터를 보게 됐습니다. 새희망홀씨는 2010년 11월부터 16개 은행에서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대출받기 어려웠던 계층을 위해 만든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결과는 '역시나'였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모두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새희망이라더니 역시 서민에게는 금융기관이란 문턱이 높긴 높구나" 하는 자조 섞인 한탄을 하며 한참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은행 직원이 실낱 같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몇 개의 서민금융상품을 징검다리 삼아 이자와 분할상환 부담을 낮추고 전세 보증금도 마련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우선 급한 고금리 대출 일부를 상환하고, 신용이 다소 회복되는 시기에 새희망홀씨 대출을 최고 한도까지 받아서 나머지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결혼 빚과 월세 탓에 카드 돌려막기에 진절머리가 나던 어느 날 '새희망홀씨' 홍보포스터를 보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은행을 찾았습니다. 저의 금융거래를 살피던 은행직원은 몇 개의 서민금융상품을 징검다리 삼아 이자와 분할상환 부담을 낮추고 전세 보증금도 마련하자고 하였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 신용등급을 높이는 방식으로 마침내 꿈에 그리던 전세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신용등급이 올라가 이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 98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잃지 말라고 조언해 주었던 은행 직원도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증서 발급까지 가능하게 돼 저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늘 저를 괴롭혀 오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꿈에 그리던 전세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부부싸움을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끌어준 서민금융제도, 신용관리 방법 등을 주변에 전파하는 희망금융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서도 절망과 좌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은행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다른 분들의 텃밭에도 새 희망의 홀씨를 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G

기획특집

錢錢긍긍 없는 금융생활, 아는 만큼 보입니다

일러스트 · 이철원

중점기획 | 자유학기제

표지이야기

서울 사당동에 사는 학부모 이현숙(42) 씨와 아들 탁정원(13) 군은 동작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시범운영으로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겪었다. 축구를 좋아하는 정원 군은 학교에 가는 게 한층 즐거워졌다. 교육부는 아이들의 자율적인 학습을 유도하는 자유학기제의 2016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시범운영과 제도 정착에 나서고 있다.

사진 · 오상민 기자

위클리 공감

발행일 2013. 11.25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진룡
제작협력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인쇄제본** 삼화인쇄 **제작문의** ☎ 02-3704-9887
구독관련문의 ☎ 02-2625-3294 이메일 jjsmall@korea.kr

〈위클리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위클리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2월 2일(월)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위클리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답글

233호 〈기대 반 설렘 반 2014 세종시 도농이 함께 살아요〉 기사를 읽고

나태선(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시의 매력은 도시의 삶과 농촌의 삶을 한곳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기관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알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곳에서 농사 배우기, 텃밭 가꾸기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답글** 세종시 농업기술센터는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귀농 · 귀촌연구회도 운영하고 있고, 도시농업에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adtc.sejong.go.kr)를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면 자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피옥자(세종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 담당)

233호 〈세종시엔 역사 · 문화가 살아 숨쉰다〉 기사를 읽고

윤은실(세종시 블로그 기자단)

자동차를 타고 건설 중인 세종시 정비지역에 들어오다 보니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처음 세종시를 찾을 때 많이 당황했습니다.

└ **답글** 세종시 정비지역에서는 건물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 임시도로가 수시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사 상황에 따라 도로가 변하다 보니 간혹 내비게이션이 길을 인식하지 못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내비게이션을 수시로 업데이트해도 임시 도로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불편이 이어질 수 있으니,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실 때 주의 바랍니다.

– 이홍준 사무관(세종특별자치시 공보관실)

232호 〈미아 방지…'지문 사전등록제' 아시나요?〉 기사를 읽고

이정란(부산 사하구 다대1동)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지문 사전등록제'의 등록률이 아직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아 방지를 위한 '지문 사전등록제'는 많이 알려질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 등 관련기관에서 옥외광고판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답글** 내년 '지문 사전등록제' 홍보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현장등록을 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해 공동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하는 등 여러 가지로 홍보를 강화해 내년에는 등록률을 높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영 경감(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과)

지난호를 만들고 나서

도로명주소 선택, 망설일 이유가 없어 보여요

집으로 가는 길, 어쩌다 밤늦은 시간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말할 때마다 숨이 턱에 닿습니다. "서울 강동구 OO동의 OOOOOOOOO아파트로 가주세요(헉헉~)!" 그런데 내년부터 전면사용되는 도로명주소로 얘기하면 "서울 강동구 고덕로 000번으로 가주세요"로 간단해집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것과 결별하기란 쉽지 않지요. 익숙했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단숨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컴퓨터 자판 배울 때를 돌이켜 보면 선택은 자명한 것 같습니다. 자꾸 치다 보면 보다 합리적인 방법(다섯 손가락)이 빨라지게 됩니다. 더욱이 지번주소의 역사적 배경을 생각한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글로벌한 도로명주소의 선택을 망설일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글 · 박경아 기자

'댓글에 답글' 코너

〈위클리 공감〉의 독자참여 기회가 더욱 다양해지고 편리해집니다. 인터넷이나 SNS에 접속해서 정부 정책이나 기사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담당 기자나 정부 관계자들의 친절한 답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www.korea.kr
위클리 공감 홈페이지	gonggam.korea.kr
위클리 공감 블로그	koreablog.korea.kr
위클리 공감 트위터	@weeklygonggam
위클리 공감 페이스북	www.facebook.com/wegonggam

알림

강소기업 청년 서포터스 모집

고용노동부에서는 강소기업 현장정보를 청년의 시각으로 전달해 줄 서포터스를 모집합니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과 강소기업을 연결시킬 수 있는 생생스토리를 전해 주세요.

응모자격 강소기업 탐방 취재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청년 누구나
활동기간 2013년 현재~2014년 12월까지 상시 활동
활동내용 거주지역 내에 소재한 강소기업을 탐방한 후 취재기사 작성 및 사진 · 영상 촬영
활동특전 ▶소정의 취재 지원비 지급(기사 횟수, 내용 등에 따라 차등 지급)
▶연말 강소기업 서포터스 활동증명서 수여
응모일정 상시모집
제출방법 청년내일만들기 공식블로그(young_to2013.blog.me)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youngtomorrow2013@gmail.com)로 발송
심사절차 서류심사(지원서 및 포트폴리오)를 통해 취재기자 상시 선발, 합격자는 매주 금요일 개별 연락
문의 강소기업 탐방단 운영처 ☎ 02-735-8923

'건강한 식문화' 슬로건 · 캠페인송 가사 공모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건강한 식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캠페인 슬로건 및 캠페인송 가사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응모자격 소비 · 식생활에 관심 있고, 바르고 건강한 식문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민 누구나
응모주제 ▶분야 : 소비 · 식생활 캠페인 슬로건 / 캠페인송 가사
▶주제 : 우리나라의 신토불이 운동과 같이 국민의 올바른 소비 · 식생활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슬로건 및 가사 출품
(※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www.episcontest.co.kr)
시상내역 총 상금 870만원, 수상단위 1인 또는 1팀
▶대상 (농식품부 장관상) 슬로건 : 200만원 / 캠페인송 : 300만원
▶금상 (농정원장상) 슬로건 : 70만원 / 캠페인송 : 100만원
(※은상, 동상 등 그 외 시상내역은 홈페이지 참조)
응모일정 12월 16일(월) 오후 6시까지
응모방법 홈페이지 접수
문의 공모전 사무국 씽굿 ☎ 02-334-7005

낱말맞히기

빈칸의 답을 '공감 낱말맞히기 234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12월 2일(월)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 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풀이
1 밀가루를 반죽해 끓는 장국에 조금씩 떼어 넣어 익힌 음식. "OOO 잘하는 사람이 국수도 잘한다."
2 한 학년을 학업의 필요에 의해 구분한 기간. 보통 1년을 두 번 이것으로 나누죠.
3 오랫동안 먹기 위해 김치를 한꺼번에 많이 담그는 일.
5 시집갈 나이의 여성을 부르는 말. 손아래 시누이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7 겨울나기. 'OO 준비'
9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같음을 이르는 말로, 입은 다르나 목소리는 같다는 뜻.

세로 풀이
1 자기의 생활이나 체험 등을 직접 쓴 기록.
2 단과대학의 장.
3 우리나라의 대표적 서정 시인으로 '산유화' '진달래꽃' '먼 후일' '초혼' 등 주옥 같은 시를 많이 남겼죠. 본명은 정식(廷湜).
4 식물이 무성 생식을 하기 위해 형성하는 생식 세포. '저신용 서민을 위한 새희망OO대출'
6 앞으로 실현될 수 있는 성질. "그 일이 성공할 OOO이 크다."
8 보통 둥글고 배가 부르고 아가리가 넓으며 손잡이가 달린 질그릇. '물OO'

〈위클리 공감〉 232호(11월11일) '공감 낱말맞히기' 정답
가로 1 프로 4 생도 6 스무고개 8 통성명 9 선식 10 걸림돌
세로 1 프랑스 2 화생 3 수고 5 도로명주소 7 개통식 9 선돌

〈위클리공감〉 232호 낱말맞히기 당첨자
고시학(강원 원주시 모란1길) **남아경**(전남 여수시 종화서1길)
이지선(강원 홍천군 홍천읍) **지택준**(대전광역시 동구 성동로7번길)
최진경(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852번길)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적어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우편엽서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 〈위클리 공감〉 담당자 앞 (우 : 110-360)

"경제 살리기·민생 예산 제때 처리 부탁"

박근혜 대통령, 4대 국정기조 중심의 내년 예산안 설명 이어 공공부문 개혁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2014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한 것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국민이 행복해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 미래를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 2014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8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행한 2014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에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를 설명하고, 이에 맞춰 편성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때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4대 국정기조를 추진하는 데 중심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새해 시작과 함께 경제 살리기와 민생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기회복의 움직임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만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8분간의 시정연설에서 46번이나 '경제'를 언급했다. 4대 국정기조 가운데 특히 경제부흥 분야에 대한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국회와 정부,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투자촉진법안, 관광진흥법안, 소득세법안, 주택법안 등이 제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들 법안의 통과를 간곡히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가운데 두번째로 많았던 단어가 '국민'('국민행복' 포함 45번)일 만큼 국민행복에 쏟는 비중도 컸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시대의 토대 구축을 위해 내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목표로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문화융성을 위한 지원 확대도 약속한 박 대통령은 최근 숭례문 부실 복구와 관련한 국민들의 걱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숭례문을 포함한 문화재 관리·보수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엄중하게 조사하고, 문화재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은 아직은 어렵고 멀게 보이지만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이라며 "반드시 임기 중에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확고한 원칙과 인내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혹 제기된 사안들 빠른 시일 내 진상 밝힐 것"

4대 국정기조를 중심으로 한 예산안 설명에 이어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개혁 의지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정상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추진할 것"이라며 "원전과 방위사업, 철도시설, 문화재 분야 등 각 분야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들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대선을 치른 지 1년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까지도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정부의 의지와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기다려 줄 것"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서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저는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며 "정부는 여야 어느 한쪽의 의견이나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 움직일 수는 없다. 국회에서 여야간에 합의해 주신다면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매년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며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미래를 향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시정연설을 마무리했다. G

글·박경아 기자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주요 내용

경제부흥
-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
- 창조경제 기반 구축 위해 자금·기술 지원 대폭 확대
-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의 토대, 시장경제 기초 건설

국민행복
-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복지패러다임 전환
- 복지 누수 방지하고, 편리한 이용 시스템 구축
-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역량 확대

문화융성
-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활동 즐길 수 있도록 지원
- ICT기술·문화콘텐츠산업 접목, 새로운 국가발전 동력 만들어 갈 것

평화통일 기반 구축
- 확고한 원칙과 인내심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 남북한 간 신뢰 쌓기 위한 노력 지속
- 남북한 간 신뢰관계 진전되면 다양한 경제협력 확대 기대

공공·정치 분야
- 각 분야의 구조적·고질적 비리 척결
-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하도록 만드는 시스템 구축
- 앞으로 매년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에 가장 역점

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 기반 구축에도 예산 반영 우선순위 배정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가진 2014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에서 밝힌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를 중심으로 내년 나라살림을 살펴보았다.

시정연설 워드클라우드

경제부흥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에 희망이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출범 직후 17조3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특단의 부동산 대책과 투자활성화 대책,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강화 등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해 온 결과 최근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1퍼센트대로 올라가고 취업자 수는 세 달 연속 40만명 이상 늘었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월 5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이제 겨우 불씨를 살렸을 뿐"이라며 "이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경기 회복의 움직임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회복세를 확실하게 살려가기 위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농어촌 소득향상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등 미래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지방 재정에 대한 지원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제조업, 입지, 환경 분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규제완화를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해 투자 활성화의 폭을 넓혀가려고 한다"며 특히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진국 추격형' 발전 전략을 '선도형'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내년에는 창조경제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12퍼센트 증가한 6조5천억원 투입된다.

국민행복 박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국민들의 노후 안정을 위해 내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목표로 예산 5조2천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복지 패러다임을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도 복지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정 수급 등 복지 누수를 철저히 방지하고 서비스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학교 내 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사교육비와 대학학자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지방대학의 육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예산안과 함께 취업 후 학자금상환특별법,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이 법안들 역시 학생들을 위해 이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4대악 근절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6.6퍼센트 증가했고, 재난·재해 및 생활안전 예산은 3조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문화융성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문화유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박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 문화를 더욱 빛나게 하고 세계에 널리 알려서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고 세계 속에서 인정받게 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문화융성의 본격 추진을 위해 문화 재정을 정부 총지출의 1.5퍼센트인 5조3천억원으로 증액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융성의 원천인 인문학과 전통문화, 그리고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 예술인복지법 등 문화 관련 주요 법안들의 제·개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문화융성의 초석을 다져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평화통일 기반 구축 개성공단의 실질적인 정상화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음에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의지는 확고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확고한 원칙과 인내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 북핵 문제를 포함해 남북한 간에 신뢰가 진전되어 가면 보다 다양한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대화와 협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대화와 협력으로 나오면 "제가 제안한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해서 부산을 출발해 북한~러시아~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평화통일의 길도 열어갈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글·박경아 기자

2014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 주요 내용

구분	항목	내용
경제부흥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역점	2014년 예산 (총지출 357조7천억원)
	창조경제 관련 사업 예산	2013년보다 12% 증가한 6조5천억원
	외국인투자촉진법안 통과 시	약 2조3천억원 규모의 투자, 1만4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
	관광진흥법안 통과 시	약 2조원 규모의 투자, 4만7천여 개 일자리 창출
국민행복	국민의 삶 개선	2014년 복지예산 확대 (105조9천억원)
	2013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 목표	예산 5조2천억원 반영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근절 관련 예산	2013년보다 6.6% 증액
	재난·재해 및 생활안전 예산	3조원 수준 편성
문화융성	문화 재정	5조3천억원으로 증액 (총지출의 1.5%)
평화통일 기반 구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기반 구축 강화	신규 예산 402억원

출처·기획재정부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지난 11월 14일 스위스 FIFA 본부를 방문해 제프 블래터 FIFA 회장을 만나 2017년 FIFA U-20 월드컵 유치신청서와 개최협약서를 전달했다. (왼쪽부터) 제롬 발케 FIFA 사무총장, 블래터 회장, 정몽규 회장, 문화체육관광부 박위진 체육국장.

2017년 U-20 월드컵 유치 "희망 보인다"

12월 5일 브라질 FIFA 집행위원회서 최종 결정

디에고 마라도나(53), 리오넬 메시(26·이상 아르헨티나), 티에리 앙리(36·프랑스), 호나우지뉴(33·브라질), 구자철(24·한국).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스타를 배출한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FIFA 주관 대회로는 성인 월드컵 다음으로 역사가 긴 대회다. 1977년 튀니지에서 첫 대회를 연 이후 2년 주기로 열린다. 1997년 말레이시아 대회부터 참가국이 16팀에서 24팀으로 늘었다. 2011년 이집트 대회 기준 500만명의 축구팬이 TV를 시청할 정도로 대형 스포츠 이벤트다.

대한민국이 2017년 FIFA U-20 월드컵 대회 유치에 나섰다. 개최국은 12월 5일(한국시간) 브라질 코스타 도 사우이페에서 열리는 FIFA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다. 2014년 브라질월드컵 본선 조 추첨 하루 전날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것이다. 별도 프레젠테이션 없이 25명 집행위원들의 투표로 이뤄진다.

지난 5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대한축구협회는 2017년 U-20 월드컵 유치의향서를 FIFA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대한축구협회 수장으로 당선된 정몽규(51) 회장이 "국제 축구 외교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 실천에 나선 것이다.

국비 지원 없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창출

대한축구협회는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다. 대회 전체 예산(약 250억~300억원)은 국비 지원 없이 FIFA 지원금(약 30억~40억원)과 자체 재원(지자체 보조금과 스폰서십)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2002년 성인월드컵 때 건립한 기존 시설을 활용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부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지난 10월 문화체육관광부는 U-20 월드컵 대회 유치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 의결해 정부 승인을 확정했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 유치 승인 후 정부가 처음 허락한 국제 스포츠 행사다.

정부는 2017년 FIFA U-20 월드컵 대회를 유치해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그 열기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몽규 회장은 현대산업개발 그룹총수 업무를 잠시 내려놓고 U-20 월드컵 유치를 위해 쉴 틈 없이 해외 출장길에 오르고 있다. 지난 14일 스위스 취리히 FIFA 본부에서 제프 블래터(77) FIFA 회장을 만나 유치신청서(비드북)와 개최협약서를 전달하며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유치 성공 땐 2002월드컵 등 축구 그랜드슬램

2017년 U-20 월드컵 유치전에 나선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12개국이다. 한국 외에 아시아의 사우디아라비아·바레인, 유럽의 잉글랜드·프랑스·폴란드·우크라이나·터키·아제르바이잔·아일랜드, 북중미의 멕시코, 아프리카의 남아공 등이다.

한국과 잉글랜드, 멕시코가 강력한 유치 가능 국가로 꼽히며 3파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그간 대한축구협회와 재외공관 등을 통한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한국의 유치 가능성이 가장 희망적이라는 평가다.

정 회장은 FIFA 본부를 방문해 유치신청서를 전달할 때 "한국은 2002년 성인월드컵을 일본과 공동 개최했으나 이번에는 단독 개최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 의미는 특별하다"고 개최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국이 청소년 대회에 맞춰 콘셉트로 잡은 '클린 월드컵'도 공감을 얻고 있다. 한국은 승부 조작과 뇌물수수, 인종차별, 종교문제 등이 없는 순수한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점을 어필했다.

한국축구 외교력 강화의 큰걸음인 2017년 U-20 월드컵 유치, 운명의 카운트다운 시계가 종점으로 향하고 있다. G

글·박린 기자(일간스포츠)

역대 FIFA U-20 월드컵 유치국

년도	개최국	우승국	골든볼
1977	튀니지	구소련	베소노프(구소련)
1979	일본	아르헨티나	마라도나(아르헨티나)
1981	호주	서독	가보르(루마니아)
1983	멕시코	브라질	지오바니(브라질)
1985	소련	브라질	시라스(브라질)
1987	칠레	유고슬로비아	프로시네츠키(크로아티아)
1989	사우디	포르투갈	비스마르크(브라질)
1991	포르투갈	포르투갈	페이셰(포르투갈)
1993	호주	브라질	아두리아노(브라질)
1995	카타르	아르헨티나	카이오(브라질)
1997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올리베라(우루과이)
1999	나이지리아	스페인	케이타(말리)
2001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사비올라(아르헨티나)
2003	UAE	브라질	마타르(UAE)
2005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메시(아르헨티나)
2007	캐나다	아르헨티나	아게로(아르헨티나)
2009	이집트	가나	아디이아(가나)
2011	콜롬비아	브라질	엔리케(브라질)
2013	터키	프랑스	포그바(프랑스)
2015	뉴질랜드	–	–

1 인기 프로야구단 부스를 찾은 학생들이 취업 상담을 하고 있다.
2 '제3회 스포츠산업 잡페어(Job Fair) 2013' 현장을 찾은 취업준비생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3 스포츠산업대상 대상을 받은 코베아 강혜근 회장.
4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가운데)이 '제9회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에게 표창장을 전달하고 있다.

"스포츠산업은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

11월 20일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잡페어 성황…오후엔 글로벌 포럼도

"(스스로) 긴장만 안 하면 돼, 긴장만. 자꾸 긴장해서 문제야." "평소 하던 대로만 해. 일단 이력서에 이상 없는지 다시 봐봐."

11월 20일 오전 10시 서울 양재동 aT센터 전시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시작부터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다.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이 어색한 듯 멋쩍게 웃거나 친구에게 떨지 말고 면접 보자고 독려하기도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최한 '제3회 스포츠산업 잡페어(Job Fair) 2013' 현장은 취업을 바라는 학생들로 북적였다. 이번 잡페어는 스포츠산업 관련 인력채용의 장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에 기여한 기업·단체·지자체에 상을 수여하는 '제9회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과 국내외 스포츠산업의 발전 방향을 짚어보는 '글로벌 스포츠산업 포럼'도 함께 열렸다. 한국스포츠산업협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경제신문이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취업준비생 2천여 명과 체육계·학계·산업계 인사들이 두루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스포츠산업 잡페어는 국내 유일의 스포츠산업 분야 채용박람회다. 이번 행사는 신세대 취향에 맞게 취업 타로카드를 체험하거나 이벤트 스테이지에서 오디션 형식의 '서바이벌 공개면접'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채롭게 꾸몄다. 공개면접 참가자들은 익살스러운 춤과 함께 복근을 자랑하는가 하면 "스포츠마케팅 OO직군에서 일하고 싶다"며 구체적인 계획과 포부를 드러냈다.

서울시내 한 사립대학 체육교육과 2학년생인 김준환(21) 씨는 채용공고 게시판을 꼼꼼히 살펴봤다. 김 씨는 "(취업하기에는) 조금 이르지만 스포츠산업 분야에 어떤 일자리들이 있는지 알아두려고 왔다"며 "평소 이 분야 취업에 관심이 많았던 만큼 진로 선택에도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장에서 영어면접 컨설팅을 받아본 이상주(30) 씨는 "대학에서 사회체육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엔 다른 분야에서 일해 왔는데, 체육 분야로 전직을 준비하고 있다"며 "즉석에서 영어면접을 해 보고 조언을 들으니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유명 프로야구단 부스엔 취업준비생들 길게 늘어서 채용상담

전시장은 스포츠서비스관, 스포츠시설관, 스포츠미디어관, 스포츠제조·유통관 등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유명 프로야구단 부스는 채용상담을 하려는 취업준비생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릴 만큼 인기가 있었다. 스포츠미디어 관련 다른 부스에서는 즉석 면접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이어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체육계·학계 등에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리나라 스포츠산업 발전에 공로가 컸던 수상자들을 선정했다. 대상엔 캠핑·등산용품 기업인 코베아가, 최우수상엔 종합리조트 기업인 블루원이 선정됐고 경북 안동시는 우수 지자체로 꼽혔다. 이밖에 휠라인, 신티에스, STN, 대명레저산업 등 기업과 제주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 연세대 조광민 교수, 한국스포츠산업협회 김창호 부회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축사에 나선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스포츠산업은 21세기 유망산업의 하나로 최근 국내에서도 매년 10퍼센트대 급격한 성장을 기록 중"이라며 "우리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 콘텐츠로 무궁무진한 발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 키우는 한편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지속성장 가능성을 위한 글로벌 스포츠융합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글로벌 스포츠산업 포럼이 열렸다. 이 행사는 미래 글로벌 스포츠산업을 전망하고 국내 스포츠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다빈치연구소의 토머스 프레이 소장, MLB의 짐 스몰 아시아담당 부사장, 스포츠아트플러스 조지 테일러 회장, SK플래닛 정병기 그룹장 등이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G

글·이창균 기자 / 사진·지미연 기자

콘텐츠 작가들 자유롭게 놀 멍석 깐다

웹툰·뮤직비디오, 자율심의 및 사후관리제로 관련 법률 개정키로

2003년은 만화인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해다. 2003년 1월 대법원은 청소년용 만화 〈천국의 신화〉에 음란·잔혹한 내용을 표현한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 이현세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현세 작가는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1심에서 벌금 300만원, 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 6년이 걸렸다"면서 "6년 동안 자유를 빼앗긴 채 재판을 했다"며 힘들었던 상황을 토로했다.

만화기획사 누룩미디어의 박철권 대표는 "당시 이현세 작가가 절필 선언을 했을 정도로 파장이 컸던 사건"이라며 "만화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누룩미디어는 윤태호, 강풀 작가 등 인기 웹툰 작가들이 소속돼 있는 회사로 박 대표 역시 만화가이다.

박 대표는 "만화를 둘러싼 규제 논란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문제"라며 "웹툰 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웹툰은 다른 산업과 만날 때 파급효과가 매우 큰 장르입니다. 〈이끼〉, 〈미생〉 등이 그랬듯이 인기를 끈 웹툰은 영화, 뮤지컬, 드라마 등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 소스 멀티 유즈'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웹툰에 대한 규제가 심한 상황에서는 소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영화, 드라마, 뮤지컬업계 종사자들을 만나면 웹툰의 스토리가 다양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박 대표는 규제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작업을 막는다고 말한다. 작가들이 창의적인 스토리를 만들어 내려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작가들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장, 즉 멍석을 널찍하게 깔아놓아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해서 아예 판을 다 갈아엎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을 생각하되 작가가 뛰고 재주도 넘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웹툰을 원작으로 제작됐다. 〈더 파이브〉 〈이끼〉 등 웹툰의 영화화 바람이 갈수록 거세다.

그리고 그 공간은 규제가 완화될 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웹툰의 종류도 더욱 다양해질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8월 웹툰, 뮤직비디오 등 문화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인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 소관 법령 안에 존재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지티브 규제 방식은 명시된 것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며,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금지한 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정말 문제가 되는 사안만 재분류 방침은 큰 의미"

정부는 웹툰의 자율심의제를 입법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만화산업 활성화 중장기계획을 발표하고, 자율심의제 도입을 위해 만화진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박 대표는 "이러한 움직임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개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의 뮤직비디오 심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뮤직비디오 사전심의는 음악산업계 자율심의 및 사후관리제로 바뀔 계획이다. 지난 10월 5일, G드래곤의 '니가 뭔데'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뮤직비디오 심의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뮤직비디오 사전심의는 음악산업계 자율심의 및 사후관리제로 바뀔 계획이다.

그동안 음악산업의 특성상 음원 발매와 동시에 뮤직비디오를 통한 홍보 및 빠른 유통 주기가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산업 현실과 괴리된 현재의 사전심의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온라인상의 뮤직비디오 규제 부분에 대한 해결책 마련 및 제도개선의 차원에서 문체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업계 간담회와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위한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네거티브 전환

현행		개선
뮤직비디오(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를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사전심의	→	**음악산업계 자율심의 및 사후관리제 실시** 뮤직비디오 등에 대한 심의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 개정 예정

웹툰(만화)의 만화업계 자율심의제 도입

현행		개선
웹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자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대상으로 이중 규제	→	**만화업계의 자율심의제 입법화** 만화산업 활성화 중장기계획 발표 예정 및 자율심의를 위한 만화진흥법 등 개정 예정

자료·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음반산업협회 송철민 실장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송 실장은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를 인정하고, 정말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재분류를 하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문체부는 위와 같은 심의제도 개선을 포함해서 K팝 한류의 지속성 있는 발전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담은 음악산업 중기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G

글·김혜민 기자

소형호텔로 다양한 관광 숙박수요 대응

'최소 30실 이상' 객실 규제 풀리면 유럽식 테마형 고급호텔 많아질 듯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30실 규모의 소형호텔업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면서 소형 비즈니스 호텔, 게스트하우스 건축 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현행 관광호텔의 객실규모는 최소 30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등록 기준에 따라 국내에서는 30실 미만 객실을 보유한 숙박시설의 경우 시설과 서비스의 우수성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관광호텔로 등록할 수 없다.

그러나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의 관광호텔 최소 객실 수보다 적거나 아예 객실 수에 제한이 없는 국가도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경우 객실규모에 제한이 없고 영국과 일본은 10실 이상, 독일은 20실 이상으로 최소 객실 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경우 5실 이상의 미니호텔을 허용하고 있다.

소형호텔의 대표적인 사례가 부티크 호텔이라 불리는 테마형 고급호텔이다. 최근 'Tripadvisor'나 'Gayot' 같은 여행정보 사이트는 'Traveler's Choice 2013-Top 25 Small Hotel in the World' 및 'Top 10 Boutique Hotels Worldwide' 섹션에서 소규모 호텔을 소개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인터넷에서 'Best Small Hotels'를 검색하면 국가별·도시별 소규모 호텔이 소개되는 등 해외에서의 소규모 호텔은 색다른 분위기의 품격 있는 서비스와 우수한 시설을 즐기고자 하는 관광객의 선호를 받고 있다.

이러한 고급 소형호텔뿐만 아니라 프랑스 파리의 HOTEL DE LA TOUR의 경우 14개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80유로 미만의 저렴한 비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소형호텔업의 신설은 다양한 숙박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외래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서울 등 대도시지역의 경우 부지 확보 및 건설 등의 투자비가 투자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외래관광객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반면 국내 숙박시설의 부족 현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숙박시설 유형의 공급으로 과수요 현상을 해결하고 다양화·고급화되는 숙박시설 선호도에 부합할 수 있는 시설공급 방안으로 '소형호텔업'의 제도화는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다만 관광호텔로서의 기능확보 방안이 요구된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등록 기준을 통해 객실수(20실 이상 30실 미만),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 확보(단란주점 및 사행행위 시설 불가), 부대시설 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50퍼센트 이하, 조식 제공, 외국인 서비스 제공체계 확보 등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소형호텔의 규모가 기존 호텔에 비해 작음에 따라 도로의 연접기준을 기존 12미터 이상에서 8미터 이상으로 하향하는 것 또한 소형호텔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이라 할 수 있다.

글·류광훈(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장)

총 2,115점 응모… '한 잔의 당신'(목원대 신다나 씨) 대상 영예

'모두가 안전한 나라' '문화융성-행복한 대한민국' '내가 만드는 창조경제' 공모에 총 93점 수상

"맛있다··· 이렇게 좋은 홍차인데 왜 내 친구들은 아무도 안 마실까?" 창가에 앉아 여유롭게 차를 마시던 주인공이 고민을 시작했다. 맞춤형 선물과 SNS를 통한 홍보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홍차를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맛깔스럽게 그려졌다. 배경 색깔마저 홍차에 물든 듯하다. '2013 카툰 공감 만화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신다나(목원대학교) 씨의 스토리만화 '한 잔의 당신'이다.

2013년 11월 21일 제3회 '2013 카툰 공감 만화공모전' 시상식이 문화체육관광부 대강당에서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만화가협회·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만화영상진흥원·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한국카툰협회·대전아마추어만화협회(DICU)가 후원한 제3회 '2013 카툰 공감 만화공모전(이하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11월 21일 열렸다. 수상자 신 씨는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만화인구 저변 확대 및 만화를 통한 정책공감대 형성을 위한 이번 공모전은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작품을 받았다.

공모전의 주제는 세 가지였다. 초등부(같은 연령대 미취학 어린이 포함)는 '모두가 안전한 나라'로, 중·고등부는 '문화융성-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대학·일반부는 '내가 만드는 창조경제'라는 주제를 받아 진행됐다.

공모전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초등부 1,226점, 중·고등부 598점, 대학·일반부 291점 등 총 2,115점이 응모했고 예심과 본심을 거쳐 93개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옥석을 가리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인 조관제 한국만화가협회장의 말이다. "응모 주제가 다소 어려워 응모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전반적으로 작품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져 질적인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수상작 전시 일정

장소	기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1.26~12.1
서울대입구역 메트로전시관	12.2~4
한국만화박물관	12.5~12
춘천시 애니메이션박물관	12.13~20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12.21~31

금상으로는 포항시 이동초등학교 최다정 양의 '모두가 안전한 나라', 서울 윤중중학교 박강희 양의 '비빔밥과 같이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나라', 경기예술고등학교 김예지 양의 '투게더 합창단', 대학·일반부에서는 프리랜서 이석재 씨의 '내 생에 첫 일 연탄이 오'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교사상은 천안시 화랑미술학원(초등부) 조정현, 하남시 신평중학교(중등부) 이종분, 춘천시 강원애니고등학교 이광현 교사가 각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글·박지현 기자

“창조경제는 세계 새 성장전략 될 수 있다”

세계경쟁력 서밋·GFCC 연차총회 서울서 열려… 회원국 대표 등 150여 명 참석

기획재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11월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013 세계경쟁력 서밋 및 GFCC 연차총회’를 개최했다.

세계경쟁력위원회연합(GFCC·Global Federation of Competitiveness Councils)은 세계 국가경쟁력기관 간의 정책 협력과 경험, 공유 등을 위해 2010년 창설됐다.

올해로 네번째를 맞은 GFCC 연차총회는 ‘창조경제 구현을 통한 지속가능한 번영’을 주제로 GFCC 회원국 대표단, 국내외 국가경쟁력 전문가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창조경제 정책·경험 사례를 공유하고 부문간 융합, 공유가치 창출, 여성의 역할 등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첫째 날은 ‘창조경제’를 주제로 해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영상 축하메시지를 통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를 소개하면서 창조경제가 한국 경제의 재도약은 물론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글로벌 기업의 국내 투자유치 기대

세션별 논의에서는 1세션에서 각국의 창조경제 정책사례를 소개했으며, 2~4세션에서는 창조경제의 핵심 키워드인 융합, 공유, 여성을 주제로 열린 논의가 벌어졌다. ‘창조경제, 부문간 융합’을 주제로 한 2세션에서는 첨단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예술 등을 융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모든 경제주체가 협력해 창의적 두뇌로 움직이는 창업과 일자리가 끊이지 않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농업, 바이오, 문화, 국방,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3세션에서는 공유 가치를 주제로 기업의 이윤창출과 사회적 공헌을 결부시키는 방안을 제시했고, 4세션에서는 창조경제의 생태계에서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여성의 창의력과 리더십이 어떻게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1월 2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3 세계경쟁력 서밋’ 개회식에 참석, 현오석 부총리의 환영사를 대독하고 있다.

4세션에서 ‘여성인재 활용을 통한 혁신과 창조경제’를 주제로 발표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제까지 활용하지 못한 자원, 즉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혁신을 필수로 하는 창조경제 패러다임의 핵심”이라며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을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족친화경영 확대, 직장 어린이집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창조경제’를 주제로 해 민관 합동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로서, 우리나라 창조경제 정책을 해외에 소개하고 창조경제 구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자리로 평가됐다. 더불어 이번 GFCC를 계기로 방한한 글로벌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G

글·박미숙 기자

창조경제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하다

GFCC 연차총회 계기로 글로벌 창조경제의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 기대

올해 발표된 주요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는 들쭉날쭉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에서는 전년에 이어 22위를 지킨 반면 세계경제포럼(WEF) 평가에서는 여섯 계단 하락한 25위에 머물렀다.

한편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에서는 한 계단 상승한 7위를 기록했다. 같은 해에 발표된 평가 결과가 이처럼 다양한 것은 평가기관별로 지표 구성, 평가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평가지표상에 공통으로 나타난 우리 경제의 취약 요인들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여기에 우리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 즉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 정부가 제시한 처방이 바로 창조경제다. 창조경제 전략은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에 접목해 기존 산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이다. 우리 정부는 창조경제를 국정기조인 국민행복과 경제부흥의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올해는 창조경제 기반 다지기에 주력해 왔다.

지난 5월과 6월에 발표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과 창조경제 실현 계획에 이어 다양한 창조경제 관련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 주식을 거래하는 코넥스(KONEX)가 신설되고, 국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도 문을 열었다. 창조경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ICT진흥특별법,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법 등 법률 제·개정도 이뤄졌다. 다음달에는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기관과 경제5단체로 구성되는 민관 합동 창조경제 컨트롤타워가 출범할 예정이다.

경제전문가 설문서 98.6퍼센트 “창조경제 필요”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차츰 바뀌어가고 있는 듯하다. 지난 9월 현대경제연구원과 뉴시스 통신사가 공동 실시한 창조경제 설문조사에서 경제전문가 72명 중 98.6퍼센트가 창조경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책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1월 21~22일 이틀간 서울에서 세계경쟁력 서밋과 세계경쟁력위원회연합(GFCC) 연차총회가 기획재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렸다. 전 세계 33개국 국가경쟁력 기관 대표와 해외 유수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모여 세계경쟁력의 흐름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창조경제 비전을 반영한 새로운 국가경쟁력 원칙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했다. 창조경제는 모방에 의한 추격(follower)이 아닌 창조를 통한 선도(first mover)를 지향한다. 이번 GFCC 연차총회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창조경제의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G

글·김철주(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자율적 분위기 덕에 학교 쉽게 적응"

해외서 살다와 적응 힘들었던 아들 둔 학부모 이현숙 씨 "한 학기 만에 '꿈꾸는 소년' 됐어요"

"견학을 통해 시야가 넓어지고, 운동하면서 체력을 기르고, 밝아진 분위기 속에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이 될 것 같아요. 여러 면에서 선진국의 좋은 교육풍토와 비슷해진다면 아이들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결코 낭비가 아닐 겁니다."

엄마 이현숙 씨와 아들 탁정원 군은 자유학기제가 선진국형 교육풍토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했다.

"엄마, 나는 이제 알았어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것을. 난 안 되나봐. 포기해야겠어요."

어느날 학교에서 돌아온 열세 살 아들이 말했다. 담담한 어투였지만 마치 모든 걸 체념한 듯했다. '꿈도 희망도 한창 많을 나이인데 얼마나 지쳤으면…' 지켜보던 엄마 마음은 무너졌다.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지난날의 추억이다.

서울 사당동에 사는 학부모 이현숙(42) 씨와 아들 탁정원(13) 군의 이야기다. 학교생활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방황하던 탁 군에게 찾아온 자유학기제의 날들. 그리고 불과 한 학기 만에 아들은 기쁨과 의욕으로 충만한 '꿈꾸는 소년'이 됐다. 엄마는 그런 아들을 보면 절로 신바람이 난다.

"중학교에 입학한 아들이 눈에 띄게 힘들어했어요. 갑자기 과목 수가 늘고, 한자는 배워본 적도 없고, 우리말을 꾸준히 했어도 우리말로 된 학습용어는 어렵다더군요. 시험문제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고요. 수업을 못 따라가다 보니 학교생활에도 큰 흥미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학교 가기 싫다던 아들의 놀라운 변신

아들 탁 군은 2000년에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2003년부터 외국에서 자랐다. 남편이 홍콩지사로 발령을 받은 것이 계기였다. 부부는 홍콩에서 5년간 지내면서 아들을 QBS(Quarry Bay School)라는 학교에 보냈다. 만 5세부터 가는 학교로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에 해당한다. 영국식 교육 시스템에 기반을 둔 학교였다. 이후 가족은 미국에서 다시 5년을 보냈다.

영국 교육에 '쉼표학년제(Gap year)'라는 유사 제도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특수한 교육상황을 반영한 자유학기제와는 다르다.

이 씨는 "두 나라에 있는 동안 아들이 클럽활동이나 봉사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면서 아이답게 잘 자랄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들 학교는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학생들 스스로 적성과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을 줬다.

한국에 귀국한 건 지난해였다. 탁 군은 9월부터 집 근처 동작초등학교에 다니며 한국에서의 짧막한 초등학교 6학년을 마쳤다. 부부는 아들이 남들처럼 평범하게 한국에서 교육받고 자라길 희망했다. '한국에서 교육받은 적이 없는데 잘할 수 있을까?' 우려와 달리 아들은 잘 적응한 듯 보였다. 하지만 중학교에 입학해서는 초반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1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성적이 모두 안 좋았다. 외국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받으며 칭찬의 대상이었던 아들은 많이 충격받고 상심했다. 학교에 가는 게 재미있을 리 없었다.

하지만 2학기 들어 동작중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시범운영하면서 탁 군은 180도 달라졌다. 동작중학교는 서울시내에서 첫 시범운영하는 5개 학교 가운데 한 곳이다. 자유학기제가 시작되면서 아들은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며 한층 밝아졌다. 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엄마한테 자랑하는 날이 많아졌다. 자유학기제의 어떤 점이 닫혀 있던 탁 군의 마음을 열었을까.

"자유학기제를 하니까 외국에서 학교 다녔을 때처럼 오후 스포츠활동이 많아졌죠. 음악과 미술까지 예체능 교육이 크게 강화됐어요. 또 학생들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게 하는 취지의 현장체험학습이 늘었어요. 외국에 있을 때는 가보지 못한 곳을 다녀오더니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좋았던 점을 말하곤 했습니다."

탁 군은 "소방학교에 갔던 일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소방학교에서는 소방관이 양성되는 과정을 체험했다. 투철한 직업정신의 세계에 경외감을 느끼는 한편 소방안전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그간 책으로 여러 상황을 배우기는 했지만 직접 이해하게 된 건 처음이었다.

학부모로서도 학교 측이 자유학기제 시범운영에 많은 공을 들이는 게 눈에 보였다. 각 학급에서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근무지를 방문해 체험학습 시간을 갖고, 체험학습 직후엔 설문지로 꼬박꼬박 의견을 물었다.

스트레스를 받던 아들에게 학교 수업에 적응할 충분한 시간

자유학기 운영 모형 적용(예시)

진로탐색 + 동아리활동 중점모형

진로 + 동아리 위주로 학교 자율과정 편성

시간 \ 요일	월	화	수	목	금
1	기본교과 편성 (21시간)				
2					
3					
4					
5					동아리
6	예·체	진로		진로	
7					
방과후 학교	'자율과정'과 연계·운영				

※ 진로탐색 6 + 동아리 4 + 예술·체육 3 = 13시간

예술·체육 중점 모형

예술·체육 활동 위주로 학교 자율과정 편성

시간 \ 요일	월	화	수	목	금
1	기본교과 편성 (21시간)				
2					
3					
4					
5	예·체		선택 프로그램		
6	국악, 무용, 만화 사진, 디자인 스포츠리그 등	진로			동아리
7				예·체	
방과후 학교	'자율과정'과 연계·운영				

※ 진로탐색 3 + 선택프로그램 2 + 동아리 3 + 예술·체육 5 = 13시간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서 '자유학기제'를 검색하면 자세한 인포그래픽 확인 가능.

학부모 이현숙 씨가 말하는 자유학기제의 5가지 장점

1. 교실에서 벗어나 특별한 현장체험학습
2. 충분한 예체능 활동과 교육
3. 정신적 여유로 학업능률을 상승
4. 사회성 함양에 도움
5. 진로 선택에 디딤돌

적·정신적 여유를 가져다준 것도 자유학기제였다. 자유학기제에서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처럼 점수화하는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평소처럼 모든 교과목 수업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수업을 이해하고 있는지만 확인한다. 이때의 성적 등은 내신에 반영되지도 않아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자유학기 중의 학업성취도는 고려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진도가 뒤처진 학생이더라도 자유학기제를 거치면서 학습능률을 높여 진도를 따라잡을 수 있다. 이 씨는 자유학기제가 아들의 사회성을 기르는 데도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자유학기제가 운영되면서 아이들끼리 더 끈끈해졌더라고요. 같이 주말마다 축구를 하러 다니니 협동심이 생기면서 굉장히 친밀해졌더군요. 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학교에 집단 따돌림(왕따)이 없다고 합니다. 선생님들도 면담 때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율적인 분위기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가져다주나 봅니다."

현장체험학습 진로 탐색에 도움

탁 군은 자유학기 동안 평소 좋아하던 과학 과목에 한층 관심을 갖게 됐다. 현장체험학습 때 시내에 있는 과학관을 찾는가 하면 틈날 때마다 실험실을 찾아 재미난 실험들을 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라 구체적으로 진로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진로를 정하는 데 있어 이런 경험들이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자유학기제는 자신이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그 과목이 적성에 맞는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좁은 시설과 열악한 환경, 주입식 일변도의 교육. 이 씨가 한국의 학교들에 가졌던 편견이지만 이제는 많이 해소됐다. 자유학기제가 선진국처럼 아이들이 자유로이 뛰놀고 상상력을 키우게 하면서 저절로 건강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초석이 됐으면 한단다.

"견학을 통해 시야가 넓어지고, 운동하면서 체력을 기르고, 밝아진 분위기 속에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이 될 것 같아요. 여러 면에서 선진국의 좋은 교육풍토와 비슷해진다면 아이들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결코 낭비가 아닐 겁니다. 내 아이를 '공부만 잘하는 이상한 아이'로 키우고 싶지는 않거든요. 요즘 아이들 인성교육 문제가 화두인데 자유학기제가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을 거예요.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애로점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발견되겠지만 선생님들과 학생, 교육계 관계자 분들이 힘을 모아 노력할 때 더 좋은 제도로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G

글·이창균 기자 / 사진·오상민 기자

"자유학기제는 교육 개혁의 출발점"

박근혜 대통령, 동작중 창의교육 수업 참관에 이어 학생·학부모·교사들과 간담회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동작중학교 학생들과 과학 실험을 하며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현장을 체험하고 있다.

"영국 등 다른 나라를 보면 연극 같은 과목을 넣어 학생들이 협동하면서 아이디어를 내게 합니다. 우리가 잘 연구하면 학생들이 의욕적으로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길이 많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21일 오후 서울 동작구 동작중학교를 방문했다.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현장을 둘러보고 제도 정착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학교를 찾아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현황을 살피고 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대통령의 일선 학교 방문은 올 3월 학교 안전실태 점검을 위해 서울 명신초등학교를 찾은 이후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은 우선 자유학기 교과연계 진로 수업이 진행 중인 교실을 방문해 자유학기제 창의교육 수업을 참관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체험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동작중학교는 올 2학기부터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행복해 했는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듣고 운영상의 애로사항과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을 물었다. 학부모들은 일회성 정책에 그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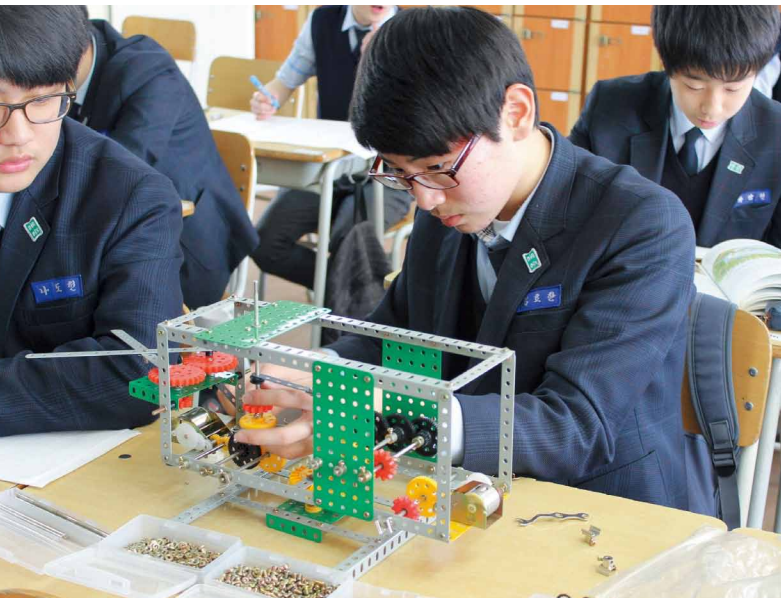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한 학기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예산 문제도 교육부에서 연구가 잘 돼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 6월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공교육 강화를 위한 자유학기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맞닿는다.

박 대통령은 "교육의 목표는 각자 내면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면서 올바른 인성을 길러 주는 것"이라며 "정부도 자유학기제를 교육 전반을 변화시키는 교육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G

글·이창균 기자

“수업에 흥미 없던 아이가 달라졌어요”

시험 스트레스 사라지자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 가져

전국의 42개 중학교가 지난 9월부터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를 실시 중인 부평동중학교 수업 장면.

전국의 42개 중학교가 지난 9월부터 '자유학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시험을 치르지 않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학교 재량으로 일반 과목 수업을 하는 대신 다양한 자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학교들은 자율과정으로 '진로탐색활동' '선택프로그램활동' '동아리활동' 등을 다양하게 운영한다.

인천 부평동중학교는 '진로탐색활동'을 중심으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 1학년 학생들은 오전에는 국어·수학·사회·과학 등 기본교과 수업을 배우고, 오후에는 진로탐색활동, 문화·예술·체육활동 등을 한다.

월요일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개발한 '창의적 진로개발 자료'를 가지고 3시간 동안 '자신'에 대해 집중하고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다. 화요일에는 부평구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공작, 난타 등을 배우고 학교로 돌아와 '모의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내 가상의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을 배우는 것이다. 수요일에는 학생들이 자신을 성찰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함께 사는 방법에 대해 배운다.

부평동중학교 표혜영 교감은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좋다”며 만족스러워했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본격적으로 생각해 보게 됐고, 학교에 오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학생 중에 결손가정 자녀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주 학교를 빠지고, 생활이 불안정했죠. 정서행동 검사에서도 고위험군으로 나온 학생 3명이 자유학기제가 시작된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서 생긴 가장 큰 변화입니다.”

“1학년 2학기만이 아니라 계속 이어졌으면”

일각에서는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지 않을 경우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표 교감은 좀 더 크고 긴 안목으로 자유학기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은 시험 스트레스를 접고 자신이 사는 세상에 대해, 자신이 주인인 삶에 대해 막연하지만 생각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해 자유학기제를 마친 이후에도 생각을 연결하는 힘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자유학기제에 대한 반응은 좋은 편이다. 울산 연암중학교 학부모회장을 맡고 있는 최기화 씨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우리 아이가 달라졌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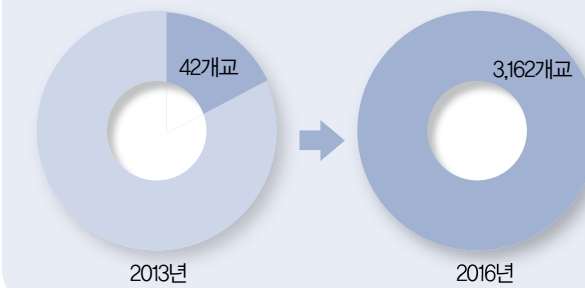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범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최 씨는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중간·기말고사를 실시하지 않게 돼 자녀가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 씨는 “아이가 자유학기제 기간 중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면서 기본 교과목에 대한 수업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국어와 미술 과목을 연계해 국어 수업에서 하회탈의 가치를 배우고, 미술 수업에서는 직접 하회탈을 만들어 보더라고요. 그 뒤 다시 국어시간에는 자신이 만든 하회탈을 쓰고 역할극을 해 보고요. 사회시간도 달라지더군요. 투표소를 설치해 직접 투표를 한다고 해요. 책 속에 갇힌 지식이 아니라 생생한 지식을 배우니까 훨씬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G

글·김혜민 기자

자유학기제 Q&A

1 자유학기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3년 현재 42개교의 연구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점점 확대해 2016년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2 자유학기에는 국·영·수 수업을 하지 않나요?

자유학기에도 국·영·수 등 기본교과의 수업은 충실하게 이루어집니다.
대신 강의식·암기식 수업은 줄이고 토론, 문제해결, 프로젝트 학습 등 참여하는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해 수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합니다.

3 자율과정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나요?

오전에는 기본교과 위주로 공부하고, 오후에는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율과정을 운영합니다. 자율과정에는 진로탐색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및 선택 프로그램 활동 등이 있습니다.

진로탐색활동
- 수업과 연계한 진로교육
- 2회 이상의 전일제
- 진로 체험 활동
- 진로캠프, 사회인사 특강 프로그램
- 자기주도 진로 체험

동아리활동
- 희망에 따른 다양한 동아리 개설
- 학교간 동아리 연계 활동
- 청소년 단체 활동

예술·체육활동
- 전문 강사를 활용한 예체능 교육 내실화
- 학생의 희망을 고려한 예체능 프로그램 편성
- 예체능과 교육간 융합 프로그램 운영

선택프로그램활동
- 학생들의 관심 분야 맞춤 프로그램 운영
-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지속 개발 보급

자료·교육부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한 학교'

학생들 시험부담 없애고 재능·적성·창의력 등 잠재적 역량 발견 도와

지난 50여 년간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서는 지식 위주의 암기식 교육이 지배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학업 성취 평가 방식도 지식 위주의 선택형 지필평가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학생들의 능력도 지필고사 시험성적에 의해 평가됐다. 입시 위주의 교육이 지속돼 오면서 학생들은 지식 위주의 시험성적에 얽매이게 되었고 치열한 시험성적 경쟁과 사교육 열풍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 풍토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 교육에서의 성취감, 만족감, 자신감, 행복감을 경험하지 못한 채 초·중등학교를 졸업하고 있다. 현재의 학교 교육 풍토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 꿈을 찾아보거나 그려볼 수 있는 학습기회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잠재적 재능이나 적성을 제대로 발현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긍정적 사고와 창의적 역량을 지닌 미래형 창의인재를 확보할 수 없게 되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기도 하다.

이러한 교육적 난제를 해결하고자 박근혜 대통령은 새정부의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를 통해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과 창의·인성교육을 실현하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자유학기제'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올해 2학기부터 전국적으로 42개 연구학교를 지정해 자유학기제를 실시 중이다.

학생들 스스로 학교 교육에 만족감 느끼게 만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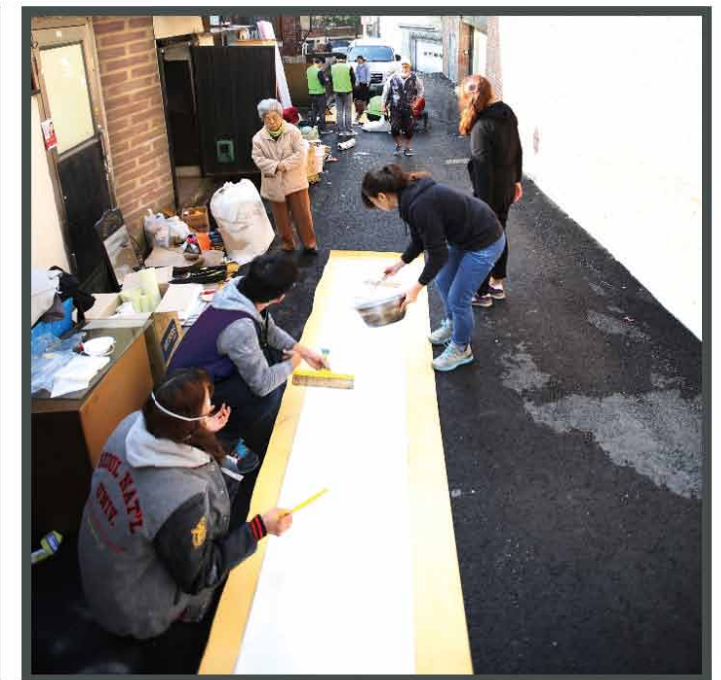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기 위해 학교는 학생들의 잠재적인 꿈과 끼를 찾아내고 있다.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 동안 토론·실습·현장체험·협력학습 등 학생 참여 중심의 체험학습 과정과 결과를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 그리하여 학생들에게 중간·기말고사 시험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신의 잠재적 역량인 재능·적성·창의력 등을 발견하여 꿈과 끼를 살려주고자 하는 것이다.

자유학기제는 전통적인 지식 위주의 암기식 수업과 선택형 지필고사 중심의 학력 평가에서 비롯되는 시험성적 위주의 경쟁적 교육 풍토를 탈피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적성·창의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토론·실습 등의 참여학습활동이나 협력학습활동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현장체험활동을 통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교육 풍토를 조성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자유학기제는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꿈과 끼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를 탐색·설계하고, 자기성찰을 통한 자아실현과 함께 건전한 인성과 사회성을 길러주는 전인교육을 실현하려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참여활동 중심의 교육풍토 조성, 능동적·자기주도적 학습태도 신장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학교 교육에 만족감을 느끼게 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자유학기제는 기존 학교 교육과정을 도외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줄 수 있도록 기존 학교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해 참여·체험·협력학습 방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의식이 살아 있는 지식(Conscious knowledge)을 학습하게 된다. 그리고 자유학기제를 '무시험 학기'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자유학기제는 지식 위주의 시험평가가 아니라 보다 실제적인 지식과 역량(Authentic knowledge and competency)을 평가한다. 즉,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에 대한 관찰 및 다양한 산출물을 통해 실제적인 재능·적성·역량을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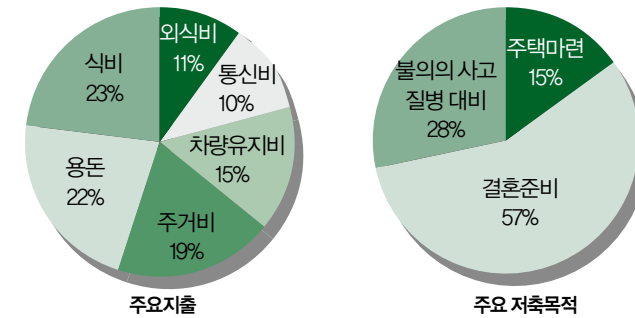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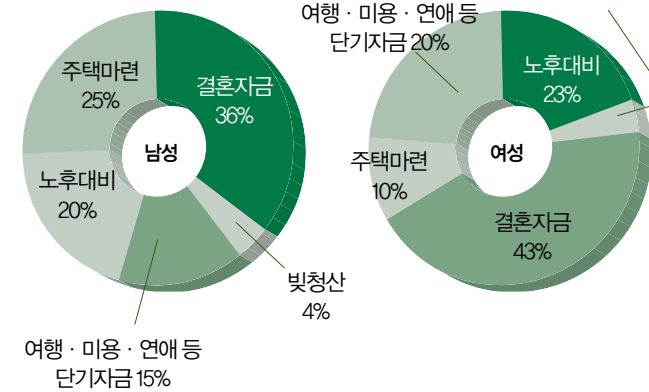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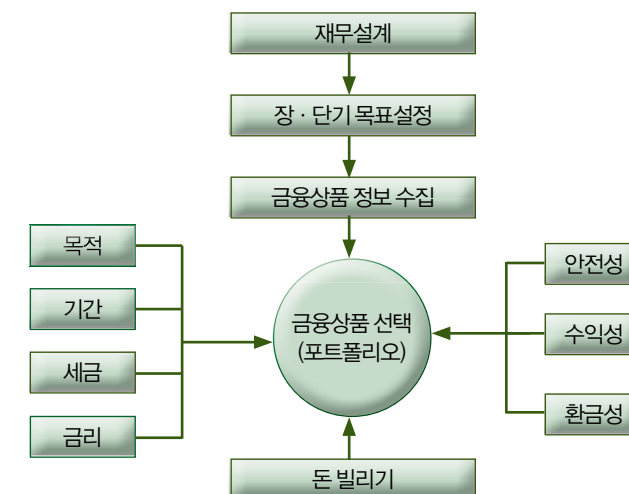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의 참여·체험·협력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재능·적성·창의력을 계발하고, 인성·사회성 함양과 자신감을 길러줌으로써 행복교육을 실현하며, 학교 교육에 대해 만족감을 갖는 '행복학교'를 만드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행복학교는 곧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고 공교육 정상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 자유학기제는 학교 교육 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게 될 미래지향적 행복교육 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박성익(서울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기획특집

錢錢긍긍 없는 금융생활 아는만큼 미래가 보입니다

일러스트 · 이형원

노후를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 번 돈을 한푼이라도 더 아끼고 한푼이라도 더 모아야 한다. 한마디로 건전한 금융생활이 필요하다. 지혜로운 금융생활을 위해서는 기초적인 금융지식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생활안정을 위한 도움을 받고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도 금융지식은 꼭 필요하다. 금융은 알면 재산이 되고 모르면 위험을 부른다.

미혼기의 재무적 특성

싱글남녀의 재테크 목적 유형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

사회진입부터 상속까지~ 내 생애 금융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한 개인이 성장하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여 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녀가 성장하는 만큼 본인은 은퇴와 노후를 맞이하게 되지요. 이렇듯 사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생애주기'라고 합니다. 생애주기별로 금융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시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대학진학 부모로부터의 독립 취업준비 및 취업 자동차 구입	미혼기	경제적 독립 준비 결혼준비
결혼 주택마련 자녀 출산 및 양육	신혼기 및 자녀출산	새로운 경제생활에 적응 자녀출산 자금 준비 주택자금 마련
자녀 사교육비 자녀 대학 등록금 준비 주택 마련 또는 확장	자녀 학령기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주택 구입 · 확장 자금 마련
자녀의 대학진학 자녀 결혼 조기퇴직	자녀 성년기	은퇴 준비 자녀독립(결혼준비)
은퇴 가족원의 죽음 건강관리	은퇴기	은퇴생활 영위 상속준비

자료 · 금융감독원

형편 따라 신용등급 따라 '맞춤형 대출'

국민행복기금, 장기연체자 21만여 명 채무조정… 대부분 저소득 계층으로 '서민 제도' 재확인

지난 3월 28일 서울 중구 을지로 2가에 위치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행사.

서울 장안동에 사는 이모(45) 씨는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다. 예전에 사업을 했던 이 씨는 외환위기 시절 큰 빚을 지게 됐다. 어렵게 빚은 다 갚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져 대출은 꿈도 꿀 수 없었고, 신용카드 거래도 할 수 없었다.

겨우겨우 장사를 유지했지만, 두 개의 고등학교 사이에 위치한 이 씨의 편의점은 방학이 되면 학생 손님이 뚝 끊겨 편의점 유지는 물론이고 개인 생활도 힘들게 됐다. 이 씨는 어쩔 수 없이 은행 대출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 과거 큰 빚을 졌던 기억이 있고 신용등급도 낮다는 것을 알고 있던 이 씨는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망설여졌다. 그러다 우연히 서민들을 위한 '새희망홀씨'라는 금융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대출을 받은 덕에 편의점은 자리를 잡았고, 이제는 학생들의 방학 기간에도 어려움 없이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국내 은행에서 취급하는 새희망홀씨는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계층을 위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해 대출해 주는 은행의 서민맞춤형 대출상품이다.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사람과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출받을 수 있다. 은행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금리는 대략 7~12퍼센트 수준이다.

장학재단 학자금 채무조정은 내년 1월까지 연장

금융채무 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 해소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역점 사업인 국민행복기금도 대표적인 서민대출 금융제도다.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의 채무를 최고 50퍼센트(기초수급자는 70퍼센트)까지 감면하고,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한 기금으로, 2013년 3월 29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 10월 말까지 장기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개별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21만4천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채무조정 개별신청 접수기간(2013년 4월 22일~10월 31일) 중 총 24만7천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고, 이 중 21만4천명에 대해 지원이 확정됐다. 장학재단 학자금채무자에 한해서는 내년 1월까지 연장한다.

현재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신청자에 한해서도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한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공적AMC 등으로부터 총 287만명의 연체채무를 매입 또는 이관했다.

이는 5년간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던 32만6천명의 65.6퍼센트인 21만4천명을 6개월 만에 지원한 것으로, 당초 예상했던 지원규모보다 월등히 높은 실적이다.

이번에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대상은 대부분 장기간 연체로 고통받은 저소득 계층으로, 도덕적 해이 문제도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돼 서민을 위한 제도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국민행복기금 주관부서인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채무상환을 완료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히 실직이나 병환 등으로 재차 채무를 연체하거나 채무상환을 포기하지 않도록, 채무 상환이 곤란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고용부 취업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상환능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별신청 마감 이후에도 일괄 매입한 채무자 94만명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적극 안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새희망홀씨론이나 국민행복기금 외에도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의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자금대부'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의료비와 혼례비, 장례비와 고교생자녀 학자금 등 목돈이 소요되는 생활필수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

소상공인지원센터(www.seda.or.kr)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에서는 학자금·생계비 용도로 연 20퍼센트 이상의 고금리 채무를 부담하는 대학생·청년에게 신용보증을 제공, 은행권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제도도 운영 중이다. G

글·박미숙 기자

한국이지론을 아십니까?

국민들에게 대출정보 원스톱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한국이지론은 서민들을 위한 대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2005년 10월 금융소외계층 등 서민들의 사금융 수요를 제도권 금융회사로 흡수하기 위해 주요 시중은행 등 19개 금융회사들이 공동으로 설립했다. 신용·담보대출 중개나 금융관련 교육, 대부중개업이 주업무다.

여러 금융회사와 지점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한 대출상담이 가능하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 한국이지론 고객상담센터(☎ 1644-1110)를 통해 전화로도 대출 상담이 가능하다.

자신에게 맞는 국내 대출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금융회사가 한국이지론에 지급하는 대출중개 수수료가 낮아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어 이용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 한편, 한국이지론은 고용창출에도 기여해 2013년 9월 말 기준으로 총 직원 20명 중 취약계층 9명을 고용해 취약계층 고용비율 45%를 기록했다.

한국이지론 www.egloan.co.kr

국민행복기금 얼마나 지원됐나

	계획(2012년 11월)	결과
지원대상(예상)	320만명	345만명(금융회사·대부업 채무자 134만명+공적AMC 채무자 211만명)
초년도(2013년) 채권매입 규모	120만명	287만명(신규채권 매입 109만명+공적AMC 이관 178만명)
지원규모	매년 약 6만명(5년간 30만명)	(실적) 6개월간 21만4천명 (예상) 5년간 32만6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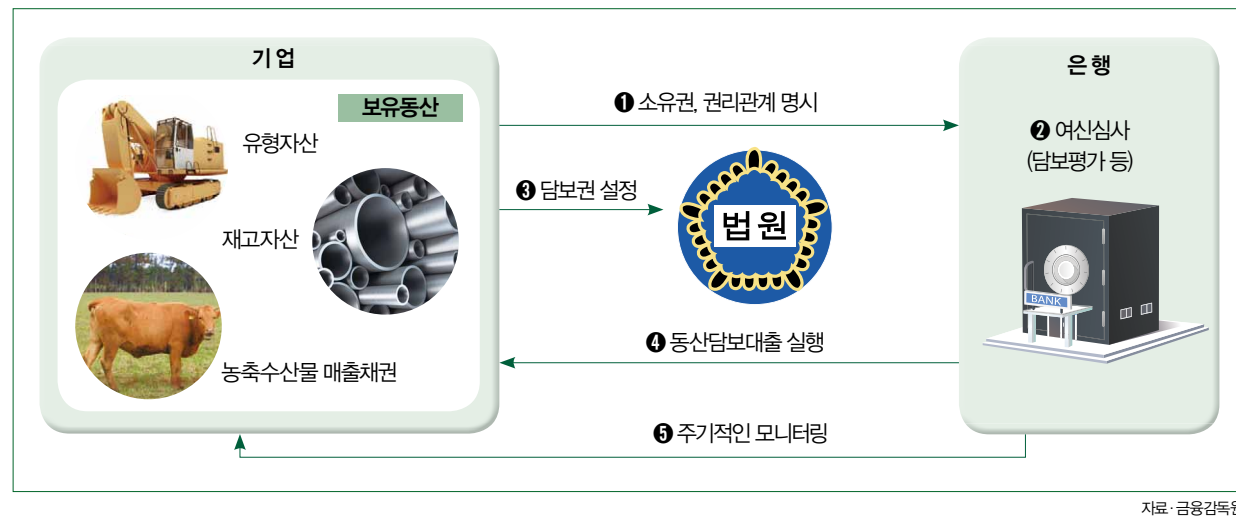
*AMC:자산관리 및 업무위탁사

자료: 금융위원회

기계나 소·돼지 있으면 돈 빌려줘요~

동산 담보대출 확대… 부동산 없는 중소기업·농가에 자금융통 '숨통'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웅웅~ 웅웅~"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기계 사이를 왔다갔다하며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다. 11월 19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보문특수칼라'를 찾았을 때의 모습이다.

이날 가장 눈에 띈 것은 큰 소리를 내며 작동하는 인쇄기였다. 길이 17미터, 폭 2미터30센티미터의 커다란 기계는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이 기계는 'UV 옵셋 인쇄 기계'로 화장품 포장지 등에 사용되는 특수 용지를 인쇄할 때 사용된다. 가격은 기능에 따라 20억~40억원 대를 훌쩍 넘길 정도로 고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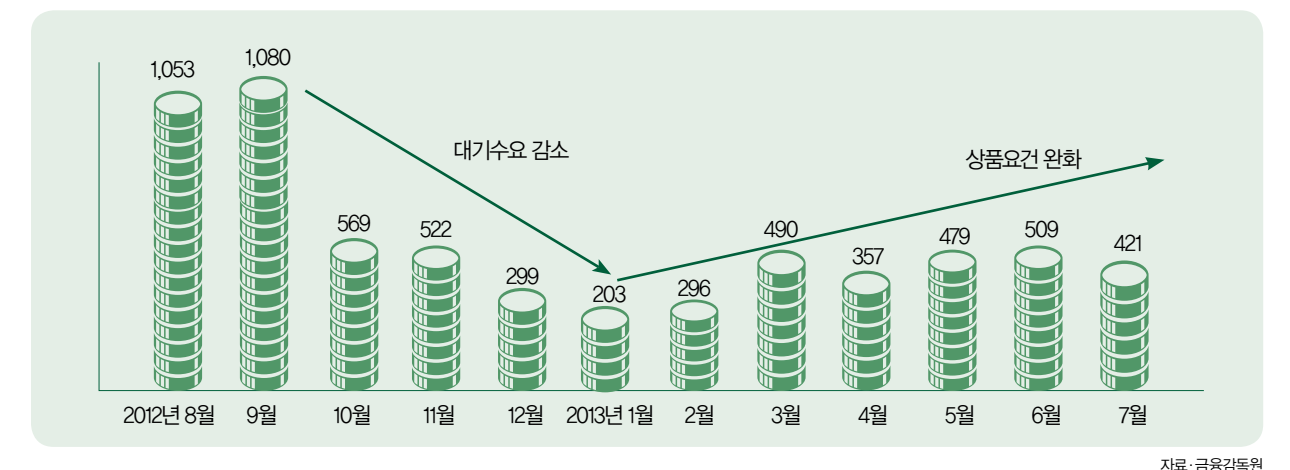
보문특수칼라는 건강식품, 화장품 포장지 등과 같은 특수 용지를 인쇄하는 중소기업이다. 보문특수칼라의 고광옥(52) 대표는 20년째 이 회사를 이끌고 있다. 고 대표는 지난해 27억원에 달하는 UV 옵셋 인쇄 기계를 담보로 기업은행에서 4억7천만원을 대출받았다.

고 대표는 "경기가 어려워 자금을 융통하는 게 쉽지 않은데 고가의 기계를 담보로 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어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에서 동산담보대출을 받기 전까지 고 대표는 제2금융권에서 기계를 담보로 대출받았다.

"캐피털 회사에서 대출받았을 때 금리가 8퍼센트 대 정도였죠. 금리 외에 이것저것 따지면 10퍼센트 정도였어요. 워낙 금리가 세서 많이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현재 고 대표는 기업은행에서 4퍼센트 대의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다. 고 대표는 "금리가 거의 절반으로 떨어지니 감당해야 할 비용이 줄어들어 마음이 훨씬 편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원금 갚는 기간을 연장받게 된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캐피털 회사에서 돈을 빌리면 연장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처음 계약할 때 정한 기간을 그대로 맞춰야 하죠. 하지만 은행과 거래를 하면 신용도가 있는 경우 2년에서 3년 정도 연장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에는 더더욱 큰 도움이 돼요. 이 제도가 진작에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고 대표가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1년 전 시작된 한 제도 덕분이다. 국내 은행들은 2012년 8월부터 '동산담보대출 신상품' 판매를 실시해 왔다. 중소기업들이 보유한 기계·기구,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등 동산을 담보로 대출상품을 새롭게 개발해 판매를 시작한 것이다.

시행 1년간 2,400여 중소기업서 이용

2012년 8월 농협, 수협, 광주은행 등 3개 은행은 유형자산,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4종의 상품을 출시했다. 이밖에 나머지 은행들은 농축수산물을 제외한 유형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3종의 상품을 출시했다.

2012년 8월 8일 '동산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된 이후 올해 8월 7일까지 2,457개 업체들이 6,279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중 유형자산은 2,721억원(43.3퍼센트), 재고자산 1,965억원(31.3퍼센트), 매출채권 1,444억원(23퍼센트), 농축수산물은 150억원(2.4퍼센트)에 달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영세한 제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중소 제조업체들은 부동산 담보가 부족해 은행 대출에서 소외됐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동산담보대출 상품'이 마련돼 중소 제조업체들이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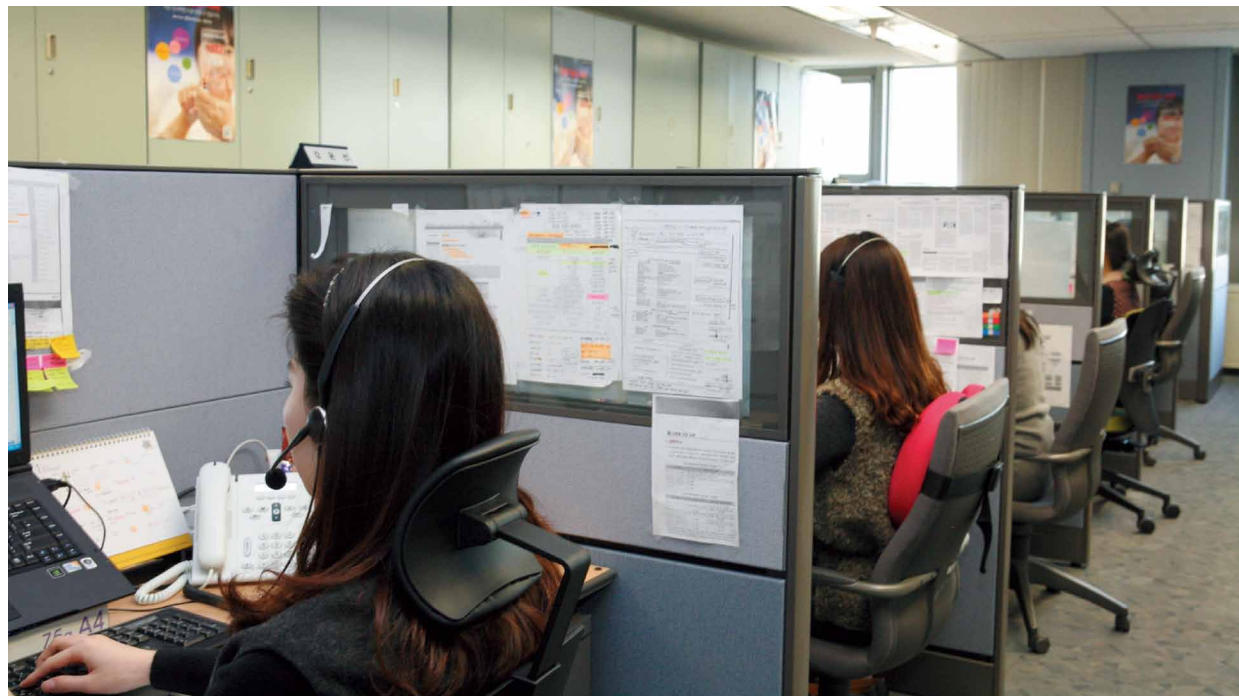
고 대표는 "중소기업에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바로 자금력"이라며 "저리 대출을 받아야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감정평가 인력을 양성하고, 은행권 공동으로 담보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기업금융개선국 이성재 기업금융개선총괄팀장은 "대출 금액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이 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G

글·김혜민 기자

서민 괴롭히는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피해신고센터 설치…신고접수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 해결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신고접수부터 피해구제까지 한번에 해결한다. 번호는 국번 없이 '1332'번이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얼마 전 불안에 떨어야 했다. 한 대부업체 직원이 와서 남편을 찾으며 욕설을 하고 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 것이다. 이어 남편이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자가 적혀 있는 쪽지를 던지는 등 채무자 가족에게 공포심을 유발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즉각 A씨의 신고 내용을 접수했다.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했는지 등 대부업체의 불법채권추심 여부를 파악했다. 센터는 위법 사실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알리는 한편 폭행·협박 등 형사처벌 사항을 관할경찰서에 통보 조치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지난해 4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불법사금융 척결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신설됐다.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자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구제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총리실이 주관해 금감원, 경찰청, 지자체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했다. 기존 사금융 피해와 서민들의 금융애로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하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상담 인력과 법률지원단을 보강했다.

센터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에 관한 상담·신고 접수부터 피해구제까지의 해결 과정이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주로 신고되는 피해 유형은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중개수수료 등이다.

피해신고 절차가 간편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뒷받침되자 신고·상담 건수가 크게 늘어 호응도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담 및 피해 신고는 총 14만7천건이다.

피해신고·상담 14만건 넘어서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출사기 4만560건(27.7퍼센트), 무등록·불법광고 1만5,967건(10.9퍼센트), 피싱사기 8,831건(6.0퍼센트), 이자율위반 7,821건(5.4퍼센트)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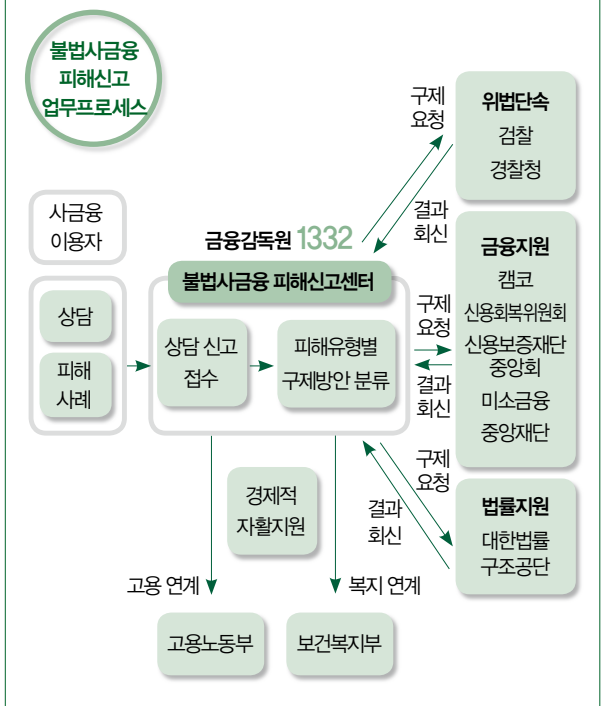
올해 8월부터는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및 금융사기 피해예방 활동을 펼칠 목적으로 '희망금융네트워크'를 발족했다. 전국 각지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희망금융네트워크는 6개월 동안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펼친다.

적극적인 불법사금융 척결 의지에 대해 국민들은 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11월 한국갤럽이 일반 국민과 피해자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1.8퍼센트가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신문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알게 됐다는 직장인 김지훈(30) 씨는 "급하거나 큰돈이 필요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불법사금융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 같다"며 "홍보가 더 많이 이뤄져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김병기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앞으로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희망금융네트워크처럼 창의적인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하는 데 주력하겠다"면서 "피해자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데 센터로 전화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G

글·남형도 기자

서민금융신고는 1332

불법사금융 등 서민금융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는 국번 없이 '1332'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유형에 따라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청·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신용회복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피해구제를 요청, 해결에 나선다.

불법사금융 접수 피해신고 처리 결과

(2012년 4월 18일~2013년 9월 30일)

지원방식	수사의뢰 (경찰청)	금융지원 (캠코 등)	법률지원 (법률구조공단)
통보건수	1만2,000건	5,000건	2,000건

자료·금융감독원

금융사기 의심되면? 일단 신고하세요!

피싱·파밍·스미싱 주의보… 예방이 우선이지만 만일의 경우 피해 최소화 해야

"고객님, 여기는 00은행인데 고객님 통장에 문제가 생겨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해킹을 당했고요,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말끔히 해결하겠습니다. 아,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요즘 KBS에서 방송하는 〈개그콘서트〉 중 한 인기 코너 대사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가장해 전화나 이메일로 개인·금융정보를 빼가는 이른바 피싱(phishing)이 극성인 세태를 풍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5,709건으로 피해 금액은 595억원에 달했다.

범죄 수법도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다. KT에 따르면 이전 명칭인 '한국통신'을 사칭한 자동응답 전화로 특정 번호를 누르게끔 유도하는 피싱 사례가 올들어 크게 늘었다. 한국통신이란 소개말에 무심코 믿고 따르게 되는 금융소비자를 노린 것이다. 이런 피싱을 위시한 '3종 금융사기'가 극성이다. 다른 두 가지는 파밍(pharming)과 스미싱(smishing)이다.

파밍은 악성 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해 PC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나 포털 사이트 검색으로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가짜 사이트로 접속되도록 유도, 개인·금융정보를 빼낸다.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 근무하는 박하운(32·가명) 씨는 최근 아찔한 일을 겪었다. 평소 자주 찾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 주거래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했는데 알고 보니 가짜였던 것이다.

박 씨는 "얼핏 보면 몇 번이나 찾았던 정상적인 은행 홈페이지와 똑같이 생겨 깜빡 속았다"며 "인터넷뱅킹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팝업창이 뜨기에 무심코 정보를 입력하려던 순간, 옆에서 동료가 이상하다고 알려줬다"고 말했다.

요즘 유행하는 파밍 수법임을 알고는 뒤늦게 가슴을 쓸어내렸다. 팝업창의 지시에 따랐다면 사기범이 박 씨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인터넷뱅킹으로 박 씨 계좌의 돈을 모두 빼냈을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올 5월 한 민원인의 이 같은 제보로 신종 파밍이 극성임을 확인하고 금융이용자 주의보를 내렸다.

스미싱도 파밍만큼이나 교묘하다. 스마트폰 문자메시지(SMS)로 '무료쿠폰 증정', '도로교통법 위반', '결혼식 초대' 등의 내용을 보낸다. 이때 SMS에 적힌 출처 미상의 사이트 주소를 무심코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설치돼 개인·금융정보가 빠져나가거나 소액결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좋아하는 커피 브랜드를 무료로 준다는 메시지에 이게 뭔가 싶어 무심코 클릭했어요. 광고라 하더라도 사이트에 들어가 보고 그냥 나오면 문제 없을 거라고만 생각했죠."

대학생 장윤희(22·가명) 씨는 지난 10월 스미싱으로 수십만원어치 소액결제 청구서를 받아야 했다. 클릭해서 원하는 내용이 없으면 일반 컴퓨터로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처럼 바로 빠져나오면 될 거라는 방심이 화를 불렀다. 스미싱은 이처럼 금융소비자의 방심을 노린다.

신고하면 계좌 지급정지… 남은 돈 3개월 내 돌려받아

금융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당황하는 대신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1년 12월부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 중이다. 피해자가 경찰서(112)나 금융기관 콜센터로 신고하면 금융기관이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한다. 이후 피해자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구제를 신청하면 계좌에 남은 금액 범위 안에서 3개월 내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1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1만 7,210명(3만4,284계좌)이 약 346억9천만원을 돌려받았다.

금감원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각종 구제 제도를 숙지하면 피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지연 인출제도'는 1회 현금 300만원 이상을 은행이나 우체국, 농·수·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시중 금융기관 통장에 입금할 경우 자동화기기(ATM)에서 출금을 10분간 늦추는 제도다. '카드론 2시간 지연 입금제도'는 카드론 최초 이용자가 300만원 이상을 신청하면 승인 후 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입금하는 제도다. 이들 제도를 미리 알고 잘 활용하면 사기범들이 거액을 빼내기 전에 선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올 9월 전면 도입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제도'도 피싱·파밍 피해를 막는 데 초점을 뒀다. 이전까지 금융 이용자들은 공인인증서를 발급·재발급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1일 누적 3백만원 이상을 이체할 때 보안카드나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이용했다. 예방서비스 제도 시행 후에는 본인 확인 절차가 보다 강화됐다. 공인인증서를 발급·재발급할 때는 지정된 단말기(PC 등)를 이용해야 하고, 지정되지 않은 단말기에서는 SMS·자동응답전화 등으로 추가 인증을 해야만 거래가 가능해졌다.

금감원 IT감독국 이수인 선임조사역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제도 시행 후 피해 건수가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따르는 한편 일상생활에서 경각심을 유지하면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스미싱의 경우 출처가 불분명한 SMS의 인터넷 주소는 열지 않아야 한다. 스미싱 피해가 의심되면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SMS에 적힌 인터넷 주소를 클릭한 시점 이후로 다운로드된 악성앱 실행파일(파일이름.apk)을 찾아 삭제하는 것이 좋다. G

글·이창균 기자

3종 금융사기 특징과 예방법

특징	유형	예방법
• 금융기관·공공기관 가장 • 전화·이메일로 개인정보 요구	피싱	• OTP·보안토큰 이용 • 출처 불명·다른 주소 이메일 삭제
• 악성코드 감염 PC 조작 • 가짜 사이트로 접속 유도	파밍	• OTP·보안토큰 이용 • PC에 공인인증서 저장 금지
• 스마트폰 SMS로 사이트 전송 • 클릭하면 소액결제 피해	스미싱	• 모르는 사이트 클릭 금지 •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

*OTP: 일회성 비밀번호 생성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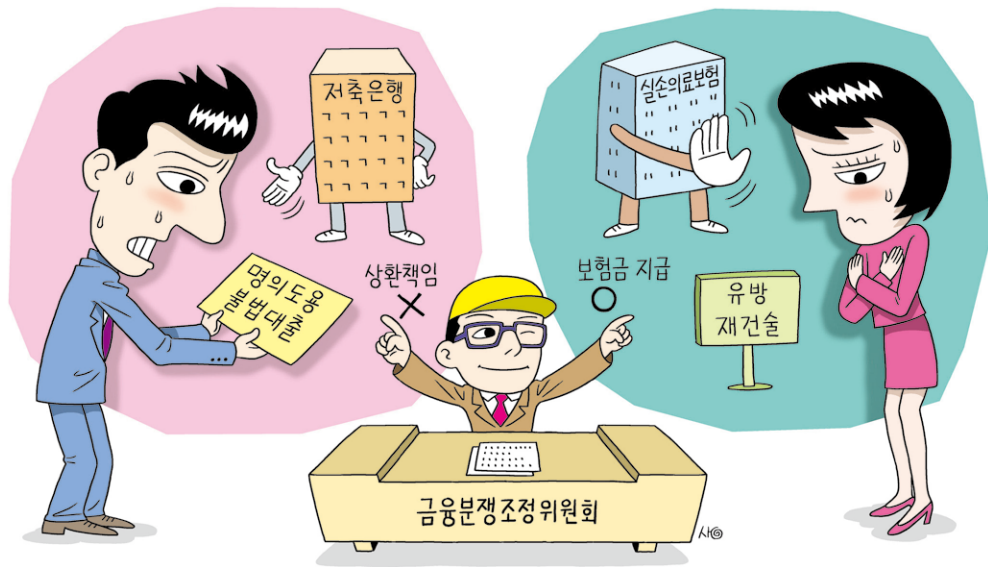
자료·금융감독원 / 사진·KBS 제공

3종 금융사기 대처법

1. 경찰서(112)나 금융기관 콜센터로 지급정지 요청
2.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3. 해당 은행·이동통신사 등에 제출하고 피해금 환급 신청
4. 스미싱의 경우 스마트폰 '다운로드' 앱을 실행해 SMS 클릭한 시점 이후 다운로드된 악성앱 실행파일을 찾아 삭제

*인터넷침해대응센터·불법스팸대응센터(콜센터 118) 이용

억울한 금융민원, 해결사 떴다

금융감독원에 간편한 절차로 신청 가능… 전화상담도 OK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수술은 성형 아닌 치료"

지난해 유방암 진단을 받은 나여성(가명) 씨는 왼쪽 가슴을 절제해 암 덩어리를 제거한 후 재건수술을 받았다. 한쪽 가슴을 재건하는 데만 1천만원이 들었다. 2007년 가입했던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냉랭했다. "유방재건술은 치료보다는 미용을 위한 성형목적에 가까우니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의 40퍼센트만 지급했다. 나 씨는 끝내 보험회사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 약관에 나온 '유방 확대·축소' 수술이 아니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건수술'은 치료라는 것. 결국 유방절제 후 받는 유방재건수술 비용도 실손의료보험에서 100퍼센트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나 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친구가 명의 도용한 불법대출은 갚을 필요 없다"

"BMW 빌려줄게, 넌 주민등록증만 빌려줘." 장비열(가명) 씨는 친구인 남황당(가명) 씨에게 자신이 렌트 중인 BMW 차량을 빌려주며 그의 주민등록증을 요구했다. 남 씨는 선뜻 내주었다. 그로부터 3일 뒤 장 씨는 남 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410만원을 대출받았다. 은행으로부터 대출 상환을 요구받은 남 씨는 황당했다. 친구의 불법대출이라고 말해 봤지만 은행은 절차를 거친 만큼 남 씨에게 상환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팔을 걷어붙였다. 남 씨의 명의를 도용해 서류를 위조한 장 씨의 대출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남 씨에게 책임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장 씨는 사문서 위조, 사기죄로 징역 및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뜻하지 않은 금융피해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본의 아니게 보험사, 은행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 이럴 때 소비자들은 든든한 지원군에게 'SOS'를 치면 된다. 바로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된 소비자보호기구다. 방대한 조직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에 대등하게 맞서기 어려운 개인 소비자 편에서 의견을 조율한다.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력한다.

2011년부터 올 9월까지 3년간 금융분쟁조정 피해구제율은 54.4퍼센트에 이른다.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서는 분쟁건수 2만9,687건을 처리했고, 52.6퍼센트인 1만5,041건에서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특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2,887건 중 98.1퍼센트인 2,832건을 구제하였다.

금융분쟁조정, 이렇게 신청하세요!

소비자는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우편·팩스·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분쟁조정신청서 및 주장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등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된다.

홈페이지 주소 : fss.or.kr

금융분쟁조정 피해구제율 3년간 54.4퍼센트

금감원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금융피해를 당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항의하거나 소송을 하는데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분쟁 해결이 쉽지도 않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간편한 절차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전화상담 또는 방문, 우편·팩스·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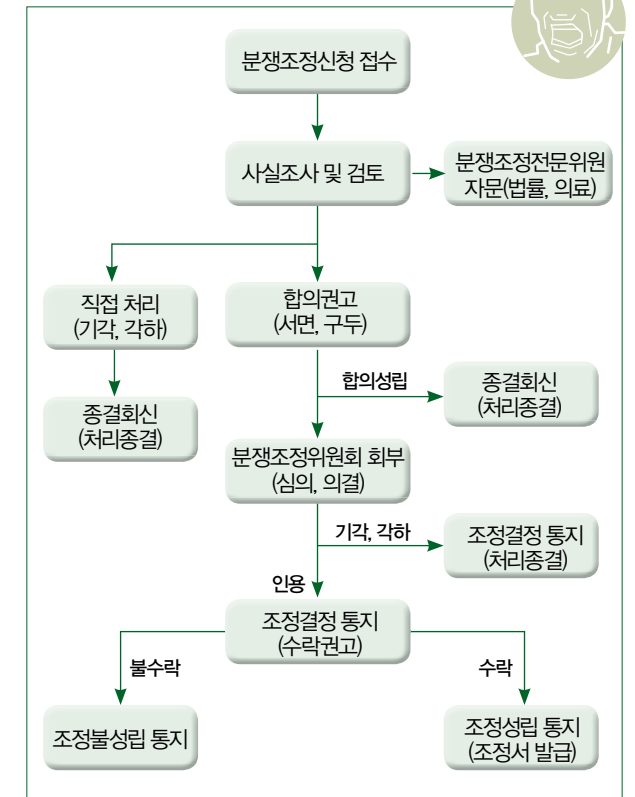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도 장점이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 소비자단체, 금융계, 학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분쟁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알지 못하는 증거나 불공정한 거래 내용, 잘못된 관행도 철저히 조사한다.

김금태 분쟁조정국 수석조사역은 "약관의 단어 하나로도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며 "세심하게 살펴 소비자의 권익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G 글·박지현 기자

금융상담 및 금융분쟁조정신청서 접수처

구분	주소	상담전화	대표번호
서울본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국번없이 1332	(국번없이)1332
부산지원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051)606-1702
대구지원	대구시 수성구 청수로 43		053)760-4000
광지지원	광주시 동구 제봉로 225		062)606-1600
대전지원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 797		042)479-5151
제주사무소	제주시 은남길 8		064)746-4200
전주출장소	전주시 덕진구 백제로 566		063)250-5000
춘천출장소	춘천시 금강로 81		033)250-2800
충주출장소	충주시 국원대로 210		043)857-9104
강릉출장소	강릉시 율곡로 2806		033)642-1902

자료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

자료 : 금융감독원

11월 15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골목을 찾은 금융사랑방버스. 누구나 무료로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는 움직이는 금융종합상담소다.

"생업에 바쁜 서민들 위하여!" 금융사랑방버스가 찾아갑니다

서울역 쪽방촌 등 요청하면 방문… 금융민원 상담과 금융교육 서비스

'지금 금융 관련 고민을 무료로 상담 중입니다.' 이렇게 쓰인 커다란 글씨와 함께 그려진 서민 캐릭터들의 모습이 친근하다. 11월 15일 서울역 맞은편의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쪽방상담소 앞길에 주차된 금융사랑방버스다.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버스 외부에 친절하게 다 적혀 있다. 상담용 휴대폰 번호도 크고 선명하다.

금융사랑방버스는 전통시장, 시골 읍·면, 다문화가정 밀집지역 등 금융소외지역의 생업 현장을 직접 찾아 서민들의 금융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 6월부터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운영 중인 '움직이는 금융종합상담소'다.

금감원 전문가들과 상담 수요가 많은 신용회복위원회, 은행 상담전문가는 상시 탑승하고 그 밖의 상담전문가는 방문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교대로 탑승하고 있다.

골목에 부는 바람이 싸해진 늦은 오후 금융사랑방버스에 70대 어르신이 들어섰다.

"5년 전쯤부터 카드대금 200만원이 연체돼 왔는데, 혼자 사는 내가 이자까지 한번에 어떻게 갚나. 얼마 전부터 채권회사로 넘어갔다고 독촉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에휴…."

동자동에서 혼자 산다는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했다. 채무조정으로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지부의 이수일 선임심사역이 상담을 맡았다. "할아버님은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데다 70세가 넘으셔서 이자는 전액, 원금은 60퍼센트까지 채무조정으로 탕감받으실 수 있어요."

마침 길 하나 건너에 신용회복위원회 사무실이 있으니 오늘 가서 접수하면 된다는 설명에 동자동 어르신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표정으로 버스를 나섰다.

이날 금융사랑방버스에 접수된 상담은 27건. 동자동 어르신과 같은 채무조정·신용불량 상담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작은 식당을 운영한다는 한 여성(60대)도 "국민은행, 농협, 저축은행 등에 4천만원 정도의 부채가 있다"며 해결 방안을 상담하러 버스에 올랐다.

상담 결과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설명을 듣고 상세한 안내를 받은 그는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 시간 내기가 힘들었는데, 여기까지 나와 이것저것 다 안내해 주니 정말 고맙다"며 감사를 표했다.

현장에서 만난 금감원의 김창덕 금융교육국 부국장은 "금융사랑방버스의 또 다른 장점은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보험, 신용회복 따로따로 갈 필요 없습니다. 사랑방버스에서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자리만 옮기면 다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금융사랑방버스 차량 내부는 34인용 중형버스를 개조해 작지만 아늑했다. 상담테이블 4개 주변으로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커튼 칸막이를 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와이파이 송·수신 기능이 있는 팩스·스캔·복사·프린터복합기, 금융교육용으로 영상기기(DVD, TV 등) 등을 구비하고 있다.

김창덕 부국장은 최근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누군가 찾아간 줄 알았던 보험금 1,779만원을 되찾은 사례를 소개했다.

바로 전주(11월 둘째주) 영등포역 앞 쪽방촌 상담 중에 있었던 일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인 60대 남자가 "오래 전 납부를 중단한 보험금이 있어 보험회사에 문의하니 누군가 찾아간 것 같다고 하더라"고 상담을 해 왔는데, 금감원 상담전문가가 보험회사에 확인하니 휴면계좌로 넘어가 있었던 것이다. 그 자리에서 보험회사에 지급 요청을 해 생각지도 않게 큰돈을 되찾은 그는 춤이라도 출 듯 기뻐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사랑방버스에서 상담전문가가 바꿔드림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금융사랑방버스를 잘 활용하기 위해 가능하면 자신의 채무상황을 파악하고 오는 것이 좋다고 이수일 선임심사역은 조언했다. "아무 준비 없이 기억만으로 상담을 하는 것보다 독촉장이라도 가져오면 상담이 더 수월하고 더 도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 금융소외지역 400여 곳 찾아 5,200여 명 상담

금융사랑방버스는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도권과 지방의 전통시장, 군부대, 탈북주민센터, 소상공인 밀집지역, 임대아파트 등 전국의 금융소외지역 400여 곳을 방문했다. 모두 5,200여 명을 대상으로 각종 금융상담과 개인워크아웃,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를 해 왔다.

방문 지역에 따라 금융교육도 병행했다.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거나 금감원 대학생봉사단 등이 나서기도 했다. 금융사랑방버스 내부에는 각종 금융교육 자료들이 비치되어 있다.

방문 지역은 금감원이 주도적으로 선정하기도 하지만 군부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의 요청을 받아 나가기도 한다.

김창덕 부국장은 "최근에는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방문 요청을 많이 해 온다"고 전했다.

누군가의 금융고민을 해소하고 누군가에게 기쁜 소식을 안겨주기도 한 금융사랑방버스, 어디에선가 확성기 안내 소리가 들린다면 망설이지 말고 들어가 보자. 금융문제에 관한 모든 고민과 궁금증을 무료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도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다. G

글·박경아 기자 / 사진·오상민 기자

금융사랑방버스 운행 요청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운영팀 ☎ 02-3145-5973

"서민금융 어려움 해결 위해 노력"

'새희망홀씨' 대출 출시 등 서민 지원 확대… 지능화되는 금융사기 대책 마련

조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서민금융 지원을 늘리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서민 가계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불황 속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낮아져 지원할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조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서민금융 지원을 늘려 서민 가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서민들이 처한 금융상황은 어떤가요?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금융회사들이 가계대출에 대한 자격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진 저신용 취약계층이 소액의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다 일생을 망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서민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더 절실합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중심 경영문화 확산 등을 통해 서민금융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은행권과 함께 저신용·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새희망홀씨' 대출을 출시했습니다. 아울러 '서민금융상담'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 애로를 청취하고 무료 금융강연과 상담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새희망홀씨 대출은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시작한 상품입니다. 출시된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93만명에게 총 7조7천억원(기존의 희망홀씨 2조7천억원 포함)이 대출되었습니다.

상호금융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햇살론'은 정부와 금융회사가 절반씩 재원을 마련하여 2010년 7월 출시한 상품입니다. 올해 9월 말까지 3조9천억원이 대출되었습니다."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대부업체 등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5월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억제하기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 및 상시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2개 이상의 광역지자체에서 영업하는 대형 대부업체와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매입채권추심업체를 금융당국에서 직접 관리하고 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형 대부업체와 관련해서도 지자체와 공조를 강화해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학생들은 학자금 마련을 위해 대부업체 등에서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 상환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금감원은 대학생들이 높은 금리의 저축은행, 대부업 및 사금융 대출에 의존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는 금융권에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학자금 대출 등과 같은 저금리의 금융지원을 늘리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생들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전환대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과 같은 공적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생 관련단체 등을 통해 홍보하고, 대학생 대상 금융교육과 상담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듭되는 단속에도 살인적인 고금리 사채,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대출,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대출사기 등 민생침해형 금융사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서민 취약계층이 주요 범죄 대상인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사금융의 폐해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9월 말까지 14만7천여 건의 피해신고와 상담을 접수해 이 중 1만9천여 건에 수사기관 통보, 법률 지원 등 피해구제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홍보하는 '희망금융네트워크'를 발족하고 동영상·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에는 수사기관,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해 불법사금융 피해억제를 위한 여러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피싱사기 수법이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어떻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 모바일과 관련된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피싱사기 수법도 날로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신·변종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부처, 금융회사 등과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피싱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300만원 이상 카드론에 대해 두 시간 동안 입금을 지연하고, 300만원 이상 현금 입금된 경우 자동화기기에서의 인출을 10분간 지연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피싱사기에 주로 사용되는 대포통장에 대해서도 근절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9월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와 공인인증서 재발급 시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변종 금융사기 유형 및 대응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G

글·남형도 기자

서민금융, 실질적 자립에 도움 줘야

적극적인 금융교육과 서민금융 관련 사회적기업 육성도 필요

바야흐로 서민금융시대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를 위한 보호활동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서민금융이란 어떤 의미일까? 금융소비자 보호가 서민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소비자를 위한 것임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 경향은 모든 금융소비자를 동등한 관점에서 대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개별 금융소비자가 가진 정보와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전문 금융소비자와 일반 금융소비자로 구분, 보호의 정도와 방법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전문 금융소비자에 비해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불공정하게 금융회사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정보의 제공이다.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비해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이 부족하다. 날이 갈수록 금융상품은 복잡해져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핵심은 정확한 정보제공

가장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방법은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의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감독당국의 중요한 과제다.

이미 선진국의 금융소비자 보호는 소비자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시 시스템이나 인쇄물을 이용하여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의 모든 내용을 꼼꼼히 공개하도록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서민금융에서 정보 제공과 같은 일반적인 방법은 소비자보호 효과를 얻는 데 한계가 있다. 몇 년 전 통계에 의하면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에서도 은행계좌가 없는 빈민층이 2,800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보다는 낫다고 해도 서민금융에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서민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서민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는 서민을 금융소비자로 만드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일반 금융회사의 문턱을 넘기 힘든 서민을 위하여 '새희망홀씨'나 '미소금융' 혹은 '햇살론' 등의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좀 더 나아가서 단순한 금전적 도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자립하는 데까지 도움이 되도록 사업적·재무적 측면에서 전문적인 조언 등이 함께 제공되었으면 좋겠다.

다음으로 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금융교육이 중요하다.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금융소비자 보호 10대 원칙에도 금융교육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랑방버스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금융교육 서비스는 적극적인 금융교육의 좋은 예다.

금융교육과 관련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정책당국이나 감독기구의 직접적인 교육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다수를 통해 교육효과가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교사나 사회복지 분야의 인력 등 취약계층에 접근하기 쉬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서민들에 대한 간접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

글·이창수(숭실대 교수·금융소비자학회 금융소비자포럼위원장)

1 국립나주박물관의 외관 전경.
2 청자대접(무안 도리포 출토).
3 금판관모 장식(나주 복암리 3호분 출토).
4 금동관(국보 제295호, 1917년 나주 신촌리 9호분 출토).
5 국내 최초의 개방형 수장고. 박물관의 가장 깊은 공간인 수장고를 일반 관람객이 살펴볼 수 있도록 창을 설치했다.

‘천년 목사골’, 나주에서 ‘힐링’하세요

국립나주박물관 개관… “인근 고분군 유적과 함께 느림과 치유의 시간 체험”

전라남도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자미산 자락, 부드러운 능선의 고분들이 솟아 있는 벌판에 황금색 2층 건물이 유려한 곡선을 뽐내고 있다. 국립나주박물관이다. 지난 11월 22일 문을 연 국립나주박물관은 나주시내에서 영암 방향으로 도로를 타고 20여분 지나면 도착할 수 있다.

나주박물관은 영산강 유역 마한 시기의 옹관 고분문화 등 독특한 토착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세워졌다. 1,500여 년 전 만들어진 고분군 유적 속에서 느림과 치유를 체험한다는 것이 박물관의 컨셉트이다.

상설전시실은 제1전시실과 제2전시실로 구성돼 있다. 제1전시실은 영산강 유역을 비롯한 전라남도 역사를 보여준다. 이번에 선보일 지역 관련 유물만 1,500여 점이다. 이 중 단연 스타급으로 꼽히는 전시품은 1917년 나주 신촌리 9호분에서 출토된 높이 25.5센티미터의 ‘금동관(국보 295호)’이다. 겉모습은 신라의 금관과 비슷하지만 금동관이 더 오래됐다고 한다. 발굴 이후 조선총독부박물관을 거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되다 1997년 국보로 지정되며 96년 만에 고향 땅 나주로 돌아왔다.

제2전시실은 ‘개방과 소통’이라는 나주박물관의 개관 취지에 가장 걸맞은 곳이다. 국내 국립박물관 최초의 개방형 수장고다. 수장고는 박물관 직원들만이 드나들 수 있는 보물창고였다. 박물관 깊숙한 곳에 있던 ‘보물창고’에 창을 달아 개방한 것이다. 일반 관람객들은 유물의 보관과 관리과정을 볼 수 있다. 나주박물관에는 총 6개의 수장고가 마련돼 있다. 현재까지 세계에서 수장고를 개방한 곳은 프랑스 케브랑리박물관과 영국 빅토리아 앤 앨버트박물관 뿐이었다. 국내 국공립박물관 중에서는 최초다.

이번 개관을 기념해 내년 2월 16일까지 열리는 특별전의 주제는 ‘천년 목사골, 나주’다. 고려시대 이후 천년의 세월 동안 전라

1 영암 내동리 옹관묘(합구 길이 280센티미터) 외 영산강유역 옹관묘들.
2 명문 기와(나주읍성에서 발굴 조사).
3 유공광구소호(나주 영동리고분 출토).
4 미수 허목 초상(보물 제1509호).
5 최희량 임진왜란첩보서목(보물 제660호).

국립나주박물관 전시실 조감도

전시준비실
기획전시실
수장전시
상설전시실
지상 1층
이벤트홀
수장전시홀
체험전시
지하 1층

남도의 행정·경제·문화의 중심지였던 나주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획전시다.

특별전은 무엇보다 나주의 '지리와 역사' 소개를 시작으로 '강과 문화', '산과문화', '사람과 문화' 등 네 가지 주제로 마련됐다는 게 특징이다. '지리와 역사'에서는 나주의 옛 모습을 고지도와 고문헌을 통해 소개한다. 나주목의 모습과 그 행적을 담은 대동여지도·전라도지도·택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이 전시돼 있다.

'강과 문화'에서는 나주목의 태동과 발전을 주제로 영산강의 흔적을 담았다. 역대 나주목사의 명단을 모은 나주선생안을 비롯해 명문기와와 도자기 자료 등이 있다.

'산과 문화'에서는 나주 진산인 금성산과 남쪽 주요 산지 덕용산 자락에 건립된 불적을 살폈다. 청동여래입상과 석제오백나한상편을 만나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 문화'에서는 나주지역의 인맥과 의례 및 전통 등 인물자료를 주로 다루었다. 임진왜란과 관련한 지역인물인 최희량, 노인 유품, 그리고 전통계승을 소재로 한 나주반 등이 있다. 국립나주박물관 기획운영과 이승현 주무관은 "삼국시대 이후를 시점으로 천년 목사골 나주지역의 여러 문화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물관 주변에는 많은 명소들도 있다. 그 중 영암 월출산은 평지돌출의 산으로 기암괴석이 많아 남도의 소금강산으로 불린다. 강진에서는 일제에 항거했던 대표적 저항 시인 영랑 김윤식 선생의 생가가 복원될 예정이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를 와서 〈목민심서〉 등을 남겨 실학사상의 산실로 불리는 다산초당 또한 강진의 명소로 꼽힌다.

박물관을 둘러보며 마한시대의 역사적 산실에 감탄했다면 밖으로 나와서는 나주 주변 전남지역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을 것이다. G

글·박지현 기자 / 사진·국립나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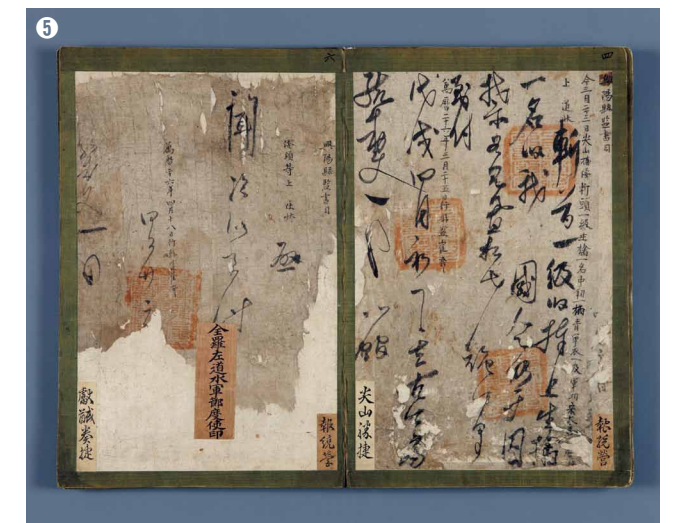
국립나주박물관 naju.museum.go.kr ☎ 061-330-7800

국립나주박물관 NFC 해설 서비스

스마트폰만 대면 유물 해설이 '술술'

국립나주박물관은 건물 밖 고즈넉한 광경과는 달리 정보기술강국의 면모를 뽐내고 있다. 국내 박물관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접촉감지(NFC 기술) 애플리케이션 전시안내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 음성안내나 PDA 안내기처럼 기기를 빌릴 필요가 없다. 일일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다.

이용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스마트폰을 유물 앞 NFC 단말기에 대면 앱을 통해 전시관 내 정보를 알려준다. 관람객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유물에 대한 설명과 사진, 외국어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런 기능이 없는 스마트폰 이용자는 박물관이 준비한 단말기를 빌리면 된다.

박중환 국립나주박물관장은 "우리 박물관은 개방과 소통을 지향한다"며 "나주박물관에서 발신되는 전시안내 자료 영상과 각 관람객의 의견·멘트는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쪽의 친구들도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문양 넥타이로 우리 문화 알려요"

넥타이박물관 개관한 이경순 누브티스 대표… 고가구와 100년 된 넥타이 등 전시

애국지사들의 얼굴 사진에 전통문양을 디자인한 넥타이 작품과 이경순 대표.

서울 성북동 길상사 방면 성북성당(선잠로 42)에 소재한 '넥타이박물관'은 지난 9월 오픈한 이후 벌써 지역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국 대사들, 정부부처 사람들, 기업의 CEO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찾고 있다.

패션 브랜드 누브티스의 이경순(56) 대표가 평생을 모아 수집한 다양한 국적의 넥타이와 이 대표가 직접 디자인해 만든 넥타이 작품 2만5천개를 보러 오기 위해서다.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태극과 팔괘를 응용한 '히딩크 넥타이'로 유명해진 디자이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외교통상부 장관 시절 맸던 '독도 넥타이'도 그의 작품이다.

넥타이박물관은 레스토랑과 합쳐진 형태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839평방미터(254평) 공간에 다양한 디자인의 넥타이들이 빼곡히 전시돼 있다.

100년 된 앤티크 넥타이를 비롯해 움직이는 넥타이 의자, 넥타이 모자와 넥타이 쿠션, 넥타이 스카프, 넥타이 블라우스 등 다채롭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벽 쪽에는 안중근 열사 등 애국지사들의 얼굴 사진에 독립문·학·해금·신라 금관 등 우리 전통 문양을 디자인한 넥타이를 걸어놓아 눈길을 끈다. 성북동 인근에는 대사관들도 많아 '넥타이박물관'은 우리 문화를 알리는 외교사절 노릇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11월 18일 박물관이 위치한 성북동에서 그를 만났다.

넥타이박물관을 개관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대에 외국에서 패션디자이너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외국 여행을 하면서 수십 년 동안 모은 넥타이를 저 혼자 가지고 있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동안 제가 모은 넥타이들을 집대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막상 마음을 먹고 나니 부지 구입부터 박물관 개장까지 한 달 보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박물관 인테리어도 제가 직접 했습니다."

2만5천개의 넥타이 작품들에 담겨 있는 스토리도 제각각일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사연이 있는 넥타이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0년이 넘는 프랑스의 앤티크 타이 중엔 1,500만원을 호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제가 공식 디자이너로 활동하면서 고안한 넥타이도 있고요. 1994년 미국의 워너브러더스가 만든 캐릭터 넥타이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첨성대, 남대문, 독도, 한글, 장구, 해금, 꽃신, 원앙, 인삼 등 3천개가 넘는 한국의 문화재나 특산품 등의 문양을 딴 넥타이들이 외국인들의 눈길을 끌고 있죠."

박물관에는 어떤 분들이 주로 오시나요?

"커피를 마시러 들르는 연인들부터 국내외 명사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외국 대사를 비롯해 외국 공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주 찾습니다. 한국적 문양으로 디자인한 넥타이를 손님들에게 선물하거나 소개하기 위해서이죠. 방금 스웨덴 대사 부인 일행도 다녀갔어요. 요르단, 이집트, 호주 주한 대사들도 방문했고요. 매년 연말엔 주한 외국 대사 부부 모임이 정례적으로 열리는데, 올해는 12월 초순경 여기서 모임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넥타이로 한국을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죠."

박물관은 누구나 들어와 감상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오전 11시에 문을 열어 레스토랑은 새벽 2시까지 운영합니다.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박물관 역시 지역주민들 누구나 들어와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박물관 마당에서 음악회를 열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넥타이를 만들기 위한 관람객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물관 한쪽에 체험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시각디자인과 학생들이 견학을 오기도 하고요. 한국폴리텍대학 학생들과도 조만간 협업으로 넥타이 개발을 할 생각입니다."

넥타이박물관에서는 각종 다양한 컨셉트로 넥타이를 전시하고 있다.

앞으로 넥타이박물관에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넥타이에 대해 공부하는 디자이너, 학생, 직장인들에게 넥타이의 역사와 상징성, 제조 과정을 이해하는 교육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외국 대사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우리 고유의 문양으로 된 넥타이 디자인을 소개하고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역할도 하고 싶습니다. 넥타이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G

글·박미숙 기자 / 사진·전민규 기자

민원봉사대상 수상한 **최영훈** 신안군 지적담당

“일도 봉사도 제가 행복해서 하는 겁니다”

최영훈 지적담당은 섬으로만 이루어진 관할구역을 밤낮없이 뛰어다니며 지적측량에 열성을 보였다.

남모르게 해 온 최 담당의 사회봉사 활동은 주민들에게 큰 신뢰감을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얘기할 때 ‘안정된 직업’과 함께 ‘철밥통’ ‘공직비리’ ‘탁상행정’ 등 부정적인 단어를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이런 선입견과 거리가 먼 사람이 있다. 온갖 궂은일을 앞장서 하고 발품을 팔아 현장을 찾아다닌다. 맡은 일도 치열하게 처리한다. 밥 먹는 횟수보다 이웃을 위한 봉사를 하는 횟수가 더 많다.

전남 신안군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최영훈(52·시설6급) 지적담당의 이야기다. 최 담당의 한발 앞선 노력과 직업정신이 민원인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고 있다. 최 담당한테 주변의 칭찬을 알려줬더니, 그는 “그게 아니다”며 손사래를 친다. “맡은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란다.

모든 행정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민원행정은 직접 발로 뛰어야 할 일이 많다. 그런 면에서 늘 현장을 찾아다니는 최 담당이 눈에 띈다. 동료들은 그를 보고 “일에 열정적인 사람,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 “일을 해도 즐겁게 하는 사람”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그가 일군 성과는 뛰어나다. 특히 주민의 불편을 없애준 성과들이 많다.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다른 지역을 조사해 이 가운데 419개 지구 3만8,100필지를 맞춰 주었다. 1만1,600필지에 대한 지적측량 검사에도 직접 참여해 220필지를 새로 등록했다. 지적공부 정리에도 나서 120필지를 새로 등록하는 등 분할·합병, 지목 변경, 등록사항 정정 등을 해 주었다.

관할 구역이 섬으로만 이뤄져 있어 다른 지역보다 시간이 몇 배 더 걸리는 일이었다. 궂은 날과 맑은 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닌 결과다.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소유권 표시사항 일치, 토지표시 변경사항 등기촉탁, 미등록 도서 일제조사 등도 그의 몫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

토지의 경계 구분을 놓고 4년 동안 법정다툼을 해온 이웃간 분쟁에도 그가 직접 나섰다. 재판부의 판결 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건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과분한 칭찬이죠. 제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일했을 뿐인데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맡은 일만큼은 완벽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제 눈으로 직접 봐야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게 저의 단점이기도 한데요, 그것을 보완하면서 장점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행정기관이든지 민원업무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긴 쉬운 일이 아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끊이지 않고 고질적인 민원도 부지기수다. 말싸움이 잦고 걸핏하면 큰소리가 나오는 곳이 민원실이다. 담당공무원도 흠을 잡히지 않기 위해 민원인을 사무적으로 대하기 십상이다. 그래서 보다 친절한 그의 일처리가 더욱 빛나는 이유다.

남모르게 해 온 최 담당의 사회봉사 활동도 유명하다. 1991년 공직생활과 함께 시작된 어린이재단 기부가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확대된 것이다.

보육원·요양원 등 찾아 크고 작은 봉사 실천

그는 신안보육원을 찾아 청소, 세탁 등 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다. 벌써 10년이 넘었다. 보육원 학생들 사이에서 그는 ‘투명인간’이라고 불린다. 보육원 아이들이나 교사들이 자리에 없을 때, 보육원에서 지내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이에 가만히 왔다가 흔적없이 봉사활동을 하고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신안군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최 담당은 청소와 세탁은 물론 말벗이 돼 주고 식사 수발까지 한다.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 빼고 자신의 손과 발을 이용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하는 셈이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를 자식처럼 반갑게 맞아준다.

고향 마을 어려운 이웃과의 자매결연, 불우이웃 돕기, 장애인복지회 기부, 외딴 섬 학교에 신문 보내기 등 크고 작은 봉사도 하고 있다. 쉬는 날마다 그치지 않고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런 그에게 ‘민원봉사대상’이 수여됐다. 안전행정부와 SBS가 공동 주최한 민원봉사대상은 민원담당 공무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 훈장격의 표창이다. 상금 500만원과 해외연수의 특전도 주어졌다.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동료들에게 미안할 따름이죠.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상을 받고 나니 책임감도 더 크고 무거워진 것 같네요.”

외모에서 풍기는 순박함이 말끝마다 고스란히 묻어난다. 그는 민원봉사대상 수상으로 받은 상금(세금 빼고 390만원)을 모두 어려운 이웃에게 내놓았다. 신안보육원에 현금 200만원을 전달하고 신안군 노인전문요양원에는 100만원 상당의 난로를 선물했다. 나머지 상금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쪼개 썼다.

“저 스스로 마음 편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하는 일인데요. 앞으로도 가장 낮은 곳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고 싶어요. 거기서 누리는 기쁨은 그곳에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거든요.”

최 담당이 내일도 봉사활동에 나서려는 이유다.

글과 사진·이돈삼 객원기자

3D사진 '찰칵'… 3D안경 쓰고 '우와~'

희귀 카메라 구경하면서 직접 찍어 아이들 과학적 호기심 자극

한국카메라박물관의 '옛날 카메라&3D입체 스마트사진 만들기'에 참여한 안양 호계초등학교 학생들이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카메라들을 둘러보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과천과학관에 서울대공원까지 몰려 있는 경기도 과천 지하철 4호선 대공원역. 이곳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국내 최대 규모의 카메라 전문박물관이 있다.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에 위치한 한국카메라박물관의 외양은 카메라를 모티프로 하여 만들어졌다. 검은 유리외벽은 카메라의 몸통을 떠올리게 한다. 건물 중앙에는 카메라 렌즈를 포개놓은 듯한 원통형 구조물이 설치됐다. 전체 건물은 거대한 우주공간을 촬영하려는 카메라의 단면 모양이다.

한국카메라박물관에서는 지난 8월부터 '옛날 카메라 & 3D입체 스마트사진 만들기'란 주제의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스마트기기(태블릿PC 등)를 활용한 '스마트 러닝' 방식이다. 감수성 예민한 초·중학생들에게 예술문화적 역량의 기본이 되는 인문학 소양을 도탑게 해 주려 마련된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지난 8월부터 12월 초까지 전국 65개 박물관에서 진행 중이다.

11월 12일 오전 안양 호계초등학교 5학년생들이 수업을 일찍 마친 뒤 한국카메라박물관을 찾아 관람하고, 관람 내용을 포스터와 3D사진으로 만든 뒤 이를 인쇄물로 출력해 3D안경을 쓰고 감상해 보는 체험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은 관람에 앞서 '직진성'과 같은 빛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와 관련된 카메라의 구조에 대해 학습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박물관 교육강사 유준석 씨의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이들 사이에서 대답이 터져 나왔다.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아이들에게 익숙한 속담을 묻는 것으로 인체의 오감 중 시각의 우수성을 이해시키고, 이러한 시각적 인상을 그대로 남기고 싶어했던 사람들의 노력으로 카메라가 발명됐다는 강사의 설명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시광선 외에도 적외선, 자외선 같은 내용이 등장했지만 아이들은 금세 이해했다. 김다은(12) 양은 "빨간색보다 파장이 긴 빛이 적외선, 보라색보다 파장이 짧은 빛이 자외선"이라며 배운 내용에 대해 망설임 없이 설명했다.

2인1조로 태블릿PC 나눠 들고 각자 과제 수행도

"카메라는 본 것을 그대로 남기려는 인류의 소망과 빛에 대한 학문적 성과가 축적되면서 탄생했습니다. 가전제품이나 '값비싼 장난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아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과학 발명품입니다."

교육강사 유준석 씨는 확신에 찬 어조로 강조했다. 그는 "이공계 기피현상이 일어나는 요즘 어린 학생들이 평소 접하기 쉬운 카메라를 통해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소질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2층 상설전시실로 가 전시물을 관람한 뒤 2인1조로 태블릿PC를 나눠 받아 주어진 미션을 수행했다. 미션은 두 가지. 하나는 자신과 다른 조원의 기념사진을 찍는 일, 다른 하나는 마음에 드는 전시물을 찍는 것이었다.

이현준(12) 군이 고른 전시물은 '스튜디오 스탠드 카메라 5×7'이었다. 1960년에 국내에서 제작됐다는 이 카메라는 목제 스탠드에 설치돼 높낮이가 조절되고 앞뒤로도 숙여진다. 셔터 속도 60분의 1초, 에어펌프로 작동된다. 사진관에서 쓰던 제품이었다.

이 군은 "전 세계에서 카메라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10여개국인데, 우리나라도 그 중 하나라는 설명에 자부심이 느껴졌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카메라를 과제로 골랐다"고 했다.

직접 촬영한 3D사진을 3D안경으로 보고 있는 아이들.

태블릿PC의 사진편집 애플리케이션을 응용해 촬영한 사진으로 포스터를 만드는 창작활동이 이어졌다. 처음 태블릿PC를 만져보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빠르게 사용법을 터득하는 모습을 보니 요즘 아이들은 '디지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듯하다.

아이들은 완성된 결과물을 즉석에서 3D사진으로 인화해 3D안경을 착용하고 감상했다. 이런 활동에는 원시적인 구조의 초기 카메라에서부터 3D사진까지 만들어내는 오늘날의 카메라까지 두루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과학기술의 발달상을 체험시킨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다.

호계초등학교 5학년 담임 김현옥 교사는 "요즘에는 학교에서 미술교육을 할 때도 사진과 프로젝터 등을 활용한다. 박물관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은 교과 경험을 확대하는 체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카메라박물관은 카메라 3천점, 렌즈 6천점에 인화장비와 유리원판 필름을 포함해 총 1만5천점을 소장하고 있다. 실제 전시물은 전체 소장품의 15퍼센트 정도. 카메라뿐 아니라 역사적 사건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진 자료들도 많다. 고(故) 손기정 선수의 사진도 그 중 하나. 독일 나치가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을 기념해 발간한 기록문서에서 일장기를 단 채 1등으로 골인하는 손기정 선수의 모습이 각별한 느낌을 준다.

글·남창희 객원기자 / 사진·지미연 기자

한국사립박물관협회 ☎ 070-4115-9963, 02-2113-8023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교육신청 museumonroad.org

아이들 전학 고민 한번에 해결하세요

세종시교육청 이달부터 '민원 원스톱 처리센터' 운영… 행복청은 주거문제 대민 서비스

"전학과 관련한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자녀교육 문제가 신경 쓰이지 않겠습니까?"

세종시 교육청 이길주 장학관은 12월 13일 시작되는 정부세종청사 2단계 입주와 관련해 "교육청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이전기관 근무자 등의 이주 편의를 제공하려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장학관은 세종시 교육청이 이달 초부터 운영에 들어간 '민원 원스톱 처리센터'(☎ 044-320-1200)의 실무 책임자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청사 2단계 이전은 그 자체로 '작은 역사'라 불릴 만하다. 5,600여 명이 넘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대거 일터를 옮기기 때문이다. 근무지가 하루아침에 바뀌고 삶의 터전이 변하게 되면 처리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다. 세종시 이주자들이 꼭 챙겨야 할 사항들을 짚어본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새학기 시작 시점은 보통 3월이다. 12월에 겨울방학이 시작되지만, 1~2월은 여전히 이사 이전에 다니던 학교의 학적에 올라 있을 수밖에 없다. 학적 변경, 즉 실질적인 전학은 새학기 시작과 함께 이뤄지지만, 1~2월을 효율적으로 보내려는 이주 학생들은 가정체험학습 또는 위탁교육을 활용하면 된다.

가정체험학습이란 세종시로 이사하는 시점에서부터 한 학년을 마칠 때까지 학교에 출석해야 하는 수업일수가 7일 이내일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원 재적 학교에 가정체험학습을 신청하고 보고서를 보내면 된다.

수업일수가 7일 이상 한 달 이내라면 원 재적 학교와 세종시 학교 사이의 교류·교환학습을 통해 위탁교육을 받으면 된다. 물론 이 경우 위탁교육을 받는 학교는 세종시에 소재하므로 등·하교 문제가 간단히 해결된다.

세종시로 이사해 우선적으로 단기간만 임시거처(월세, 원룸 등)에 살다가, 조만간 분양받은 아파트 등으로 입주할 가족이라면 세종시 내에서 또다시 전학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 세종시 교육청 측은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혹은 입주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처음부터 추후 거주 예정 지역 인근의 학교로 전학을 허용하고 학생을 해당 학교에 배정한다. 또 세종국제고 같은 특수목적 학교는 자리가 빌 경우 마땅한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 한해 역시 전학이 가능하다.

세종시 교육청 이길주 장학관이 교육청사 1층에 자리한 민원 원스톱 처리센터에서 전학 요령, 위탁교육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올 한 해 세종의 신도시지역 아파트 입주물량은 세대수 기준으로 2단계 이주기관 근무자 숫자에 못 미치는 형편이다. 그러나 조만간 완공돼 입주가 시작될 아파트 단지들을 포함하면 내년에는 오히려 아파트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수도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청은 올해 말부터 내년 중반기까지로 예상되는 주택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 시기에 주거 관련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행복청(☎044-200-1281~2)이 시행하는 '주거정보 메일링서비스'를 받거나, 세종시청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월세 시세 및 공실정보'를 참조하면 주택 수급현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주거정보 메일링·전월세 시세정보도 활용하세요

세종시청은 또 이와 함께 주거환경이 완비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부터는 '택시안심귀가' 등 이주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한 대민 서비스를 최대한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아파트 등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발효된 취득세 감면조치가 적용된다.

문의는 세종시청 세정담당관(☎044-300-3521~3)에게 하면 된다. 또 이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양도세 비과세 간주 기간은 종전의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예를 들어 서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세종시에 또 한 채의 집을 마련했다면, 세종시에서 집을 구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늦어도 5년 이내에만 1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이밖에 전세 등을 얻는 사람은 계약할 때 한층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종지역 아파트의 전세가격 등이 분양가에 육박하거나 상회하는 예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세가격과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액수의 합계가 분양가를 크게 웃돌 경우 전세금 회수에 애로가 따를 수도 있다.

전세계약 때 부동산업체를 이용하게 된다면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확인하고, 계약 당사자가 해당 아파트의 진짜 소유자인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등기가 끝나지 않은 미등기 아파트라면 분양계약자와 임대인이 동일인인지를 점검해야 한다.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전세로 얻는다면, 공동명의자 모두와 계약을 맺는 게 보다 안전하다. 또 확정일자를 받아두거나 전세등기를 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세종청사 내에 자리한 이전지원종합센터. 세종시는 물론 공주, 청원, 대전 유성 등 인근 지역에서까지 공무원들이 파견돼 이주자들의 각종 민원을 상담한다.

거주지 이전에 따른 전입신고는 세종시 개발지역, 즉 신도시의 경우 첫마을에 있는 한솔동 주민센터(☎044-301-6100)에서 하면 편리하다. 주민등록을 위한 전입 외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것들도 적지 않다. 차량 이전신고가 대표적인 예로, 지역명이 있는 번호판의 차량이라면 전입신고 후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 전국번호판을 달고 있다 해도 법인이나 단체, 상업용 차량의 경우 기본적으로 변경신고 대상이다.

신고기간이 경과하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오토바이나 스쿠터 같은 이륜자동차도 이전 신고를 해야 한다. 애완견을 소유한 사람들은 동물등록제에 따라 전입한 뒤 30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음엔 경고 조치가 따르지만 계속 미룰 경우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만 85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구로 3세대 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한다면, 매월 효행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어르신 본인은 사회활동장려금을 별도로 지급받는다. 장애인들에게도 매월 주거비가 소액 보조된다. 그런가 하면 6·25전쟁, 월남전 등에 참전한 유공자는 올 11월 기준으로 매월 1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탈 수 있다. G

글과 사진·김창엽(자유기고가)

어릴 적 주전부리, 올갱이국

중앙포토

올갱이국은 충청도를 대표하는 해장국이다. 탕반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는 지역별로 다양한 해장국이 존재한다. 타 지방의 해장국이 대부분 선지나 북어 같은 육류나 해산물을 주재료로 하는 데 반해 충청도에서는 민물고동 올갱이로 국을 끓인다.

올갱이는 다슬기의 충청도 사투리이다. 다슬기라는 표준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대부분의 식당 메뉴에 올갱이라는 이름이 통용되는 것만 봐도 이것이 호서지방의 기호식품임을 알 수 있다.

기실 다슬기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잡힌다. 어디라도 물이 맑은 하천이나 계곡의 큼직한 자갈이나 바위 밑에는 대개 다슬기가 서식한다. 농촌 출신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 동네의 맑은 개울에서 다슬기를 잡으며 놀던 기억과 삶은 다슬기의 알맹이를 바늘로 쏙쏙 빼먹던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다슬기는 지역에 따라 부르는 이름도 다양하다. 경상도에서는 고동, 고둥, 고디 또는 사고둥이라 하고 전라도에서는 대사리, 데싸리, 다사리라 하며 강원도에선 달팽이, 꼴부리, 꼴팽이 등으로 부르고 그 외에 민물고둥, 냇고동, 소래, 소래고둥, 갈고동, 소라, 물비틀이, 고딩이, 배드리, 골벵이, 올뱅이, 물골뱅이, 골뱅이, 도슬비 등으로도 불린다. 다슬기라는 표준명으로 부르는 지역은 수원, 안양 등 서울 인근뿐이다.

다양한 호칭 중에서도 음식 이름에는 올갱이해장국, 올갱이수제비, 올갱이칼국수, 올갱이무침, 올갱이전처럼 올갱이가 가장 흔하게 쓰인다. 어떤 이름보다 올갱이가 훨씬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충청도 사람들의 올갱이 사랑이 유난하기 때문일까.

최근의 한 조사에서 충북 사람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식품 1위로 올갱이국을 꼽았을 정도이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금강, 남한강, 괴강 등을 끼고 있는 옥천이나 영동, 충주, 괴산, 단양 등 도내의 대부분 지역에서 올갱이를 쉽게 채취할 수 있는 천혜의 여건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참다슬기, 주름다슬기, 곳체다슬기, 띠구슬다슬기 등 총 2속 9종류가 서식한다고 하는데 이 중 2급수에서도 생존이 가능한 곳체다슬기는 식용으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다. 학문적 분류와는 달리 현지사람들은 껍데기의 상태에 따라 다슬기를 구분한다. 껍데기가 맨들맨들한 것은 '뺀질이', 오톨도톨한 것은 '까끌이', 중간 것은 '반까끌이'라 하는데, 맛은 물살이 센 계곡에서 잡히는 뺀질이를 제일로 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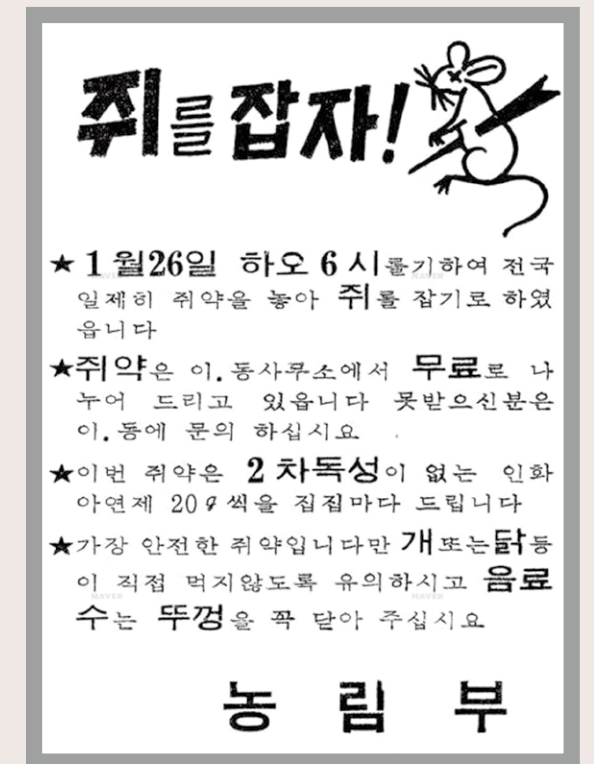
올갱이국은 최고의 해장국이다. 대부분의 해장국이 시원한 국물로 속을 풀어주기만 하는 데 반해 올갱이국은 옛날부터 숙취 해소는 물론 간과 위에까지 좋다고 알려져 있어 술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다. 올갱이에는 칼슘과 카로틴 및 마그네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여러 가지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다른 지방에서는 들깨 가루를 넣고 끓이거나 채소만 넣고도 끓이지만 충청도의 올갱이국은 일반적으로 된장을 풀어서 끓이기 때문에 우리와 더욱 친숙하다. 게다가 봄, 여름에는 부추와 파를 넣고 가을에는 아욱, 겨울에는 시금치를 넣고 끓이면 올갱이의 쌉싸래한 맛과 잘 어우러져 그 개운함이 배가된다.

올갱이국은 충북 전역에서 흔히 먹을 수 있지만 괴산에서는 '올갱이 축제'가 열리고 30여 년 된 '올갱이국거리'가 다 형성되어 있을 정도로 특화되어 있다. 괴산의 올갱이국 전문점들은 직접 담근 묵은 된장을 쓰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괴산의 '주차장식당'과 '서울식당', 청주의 '상주집', 옥천의 '금강올갱이' 등이 올갱이국으로 이름난 식당들이며, 서울에서는 사직동의 '가정식백반올갱이집'에서 그 애초롬한 국맛을 즐길 수 있다. G

글 · 예종석(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음식문화평론가)

"쥐는 살찌고 사람은 굶는다"

"쥐를 잡자!" "쥐는 살찌고 사람은 굶는다."

복지가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에 비춰보면 희미한 옛사랑의 기억 같은 장면이지만 1970년대에는 '전국 일제 쥐잡기 운동'을 벌였다. 겨울로 들어가는 초입이나 한겨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인 것. 언론에서도 적극 호응해 잡은 쥐의 숫자를 보도하거나, "간첩을 색출하는 정신으로 쥐를 찾아내 박멸하자"며 정부 정책에 호응했다.

1970년 1월 26일 오후 6시, 제1회 전국 동시 쥐잡기 운동이 펼쳐졌다. 1960년대부터 시·군 단위로 벌이던 쥐잡기 행사를 농림부가 범국민 캠페인으로 확대한 것. 당시 농림부는 인구 1인당 세 마리, 한 집 평균 18마리의 쥐가 있어 전국에 9천만 마리의 쥐가 있다고 추산했다. 전국의 쥐들이 한 해 약 240만섬(240억원, 곡물 총 생산량의 8퍼센트)을 먹어치우니 절반만 잡아도 곡물 120만섬을 구한다는 논리였다.

농림부(현 농림축산식품부)의 '쥐를 잡자' 편(경향신문 1970년 1월 21일)은 제1회 전국 동시 쥐잡기 운동을 알리는 '기념비적' 광고다. "쥐를 잡자!"는 헤드라인 옆에 꼬챙이에 찔린 쥐를 펜 드로잉으로 재미있게 표현했다. '1월 16일 하오 6시를 기해 전국 일제히 쥐약을 놓아 쥐를 잡기로 했는데, 쥐약은 이(理)·동(洞)사무소에서 무료로 나눠주며, 2차 독성이 없는 인화 아연제 쥐약 20그램씩을 집집마다 분배하고, 안전한 쥐약이지만 개나 닭이 직접 먹지 않도록 유의하며 음료수는 뚜껑을 꼭 닫으라'는 내용이다.

쥐를 잡자!

★ 1월26일 하오 6시를 기하여 전국 일제히 쥐약을 놓아 쥐를 잡기로 하였읍니다

★쥐약은 이.동사무소에서 무료로 나누어 드리고 있읍니다 못받으신분은 이.동에 문의 하십시요

★이번 쥐약은 2차독성이 없는 인화아연제 20g씩을 집집마다 드립니다

★가장 안전한 쥐약입니다만 개또는닭등이 직접 먹지않도록 유의하시고 음료수는 뚜껑을 꼭 닫아 주십시요

농 림 부

농림부(현 농림축산식품부)가 1970년 1월26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내보낸 범국민 운동 '쥐를 잡자!' 광고.

정부에서 쥐약 놓는 시간까지 정해 주다니! 국민들은 오후 5시에 쥐약을 놓아도 되지만 꼭 6시에 쥐약을 놓아야 하는 줄 알고 그 시간을 맞추었다는 기사도 있다. 학교별로 목표치를 할당해 학생이 많은 집에서는 서로 쥐를 더 가져가겠다고 싸워 부모가 형제의 쥐 숫자를 정해 주기도 했다고 한다. 쥐꼬리를 잘라 학교에 가져가면 꼬리 한 개당 연필 한 자루씩을 주기도 했고, 많이 가져가면 복금 당첨권을 주기도 했다. 1억4천만원을 투입해 효과가 좋았으니, 그 후 구서(驅鼠·쥐잡기) 포스터 공모대회나 쥐잡기 주제의 웅변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유튜브에서는 다시 쥐잡기송(song)이 인기를 끌고 있다. "쥐 한 마리가 쥐 두 마리가~~~ 그때 야옹~ 야옹~ 고양이 나왔지~~ 모두 쥐구멍에 들어가서 숨어버렸지." 10대들은 저 1970년대의 쥐잡기 운동을 아는지 모르는지 재미있게 흥얼거린다. 박멸의 대상에서 귀여움의 대상으로 처지가 바뀐 쥐들의 운명에서 시대의 표정을 느껴보자. G

글 · 김병희(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최명희는 여뀌를 왜 등장시켰을까

우리 소설 속에서도 많은 꽃들이 피고 지고 있다. 소설은 우리 삶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한 부분인 꽃이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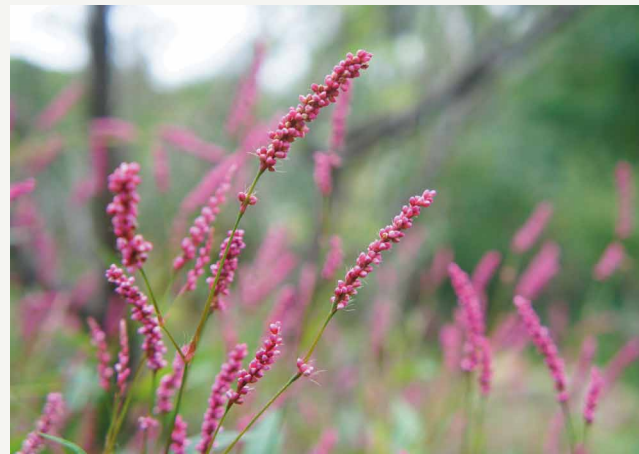
최명희의 대하소설 〈혼불〉에는 '여뀌〈사진〉 꽃대 부러지는 소리'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작품 2권에는 "강실이에게는 그 목소리조차 아득하게 들렸다. 그러면서 등을 찌르던 명아주 여뀌 꽃대 부러지는 소리가 아우성처럼 귀에 찔려왔다"는 대목이 있다. '여뀌 꽃대 부러지는 소리'는 4권과 6권에서도 다시 나오고 있다.

이 소설은 사촌 사이인 강실이와 강모의 애증관계가 기본 뼈대 중 하나다. 처음 강실이는 살구꽃 이미지였다. 강실이 집 토담가에는 연분홍 살구꽃잎이 휘날리는 아름드리 살구나무가 서 있고, 강모와 강실이는 어릴 적 그 살구나무 아래에서 소꿉장난을 했다.

강모는 혼례를 치르지만 신부에게 정을 붙이지 못하다 어려서부터 연모해 온 강실이를 범한다. 그 장소가 여뀌가 무성한 텃밭이었다. 이 사건은 강실이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변곡점이었다. 무책임한 강모는 만주 봉천으로 도피해 버리고, 옹구네가 강모와의 정사 소문을 퍼뜨리면서 홀로 남은 강실이는 벼랑끝으로 몰린다. 그래서 강실이가 이 장면을 회상할 때마다 '여뀌 꽃대 부러지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그럼 왜 하필 여뀌일까. 소설의 배경은 전북 남원의 노봉마을이다. 남원을 가로지르는 강 이름이 요천(蓼川)이고, '요'자가 '여뀌 요'자라는 것을 알면서 그 궁금증은 풀렸다. 요천은 여뀌꽃이 만발한 모습이 아름답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는 것이다.

요천은 광한루 앞 등 남원 시내를 흘러 섬진강에 합류하는 샛강이다. 본래 '요강'이라고 부르려다 어감이 좋지 않아 요천으로 바꾸었고, 남원 사람들은 '요천수'라고 부른다. 지난 봄 산철쭉 사진을 찍기 위해 지리산 바래봉에 다녀올 때 요천수를 보았다. 둔치를 쌓는 강변 개발을 해서 여뀌가 자랄 공간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여뀌는 습한 곳이나 시냇가에서 무리지어 자라는 1년생 풀이다. 6~10월 가지 끝에 이삭 모양의 붉은색 꽃이 다닥다닥 달리지만, 요즘도 산기슭이나 도심 공터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고마리·부레옥잠 등과 함께 수질을 정화하는 기능이 있다.

〈혼불〉은 작가가 17년에 걸쳐 완성한 대하소설이다. 작가는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재직하다 1981년 초 〈혼불〉을 쓰기 위해 사직했다. 작가는 〈혼불〉을 쓰기 시작한 이후로는 다른 작품을 쓰지 않았고, 1998년 암에 걸렸지만 치료를 거부한 채 〈혼불〉을 완간한 지 2년 만에 별세했다. 우리 나이로 52세 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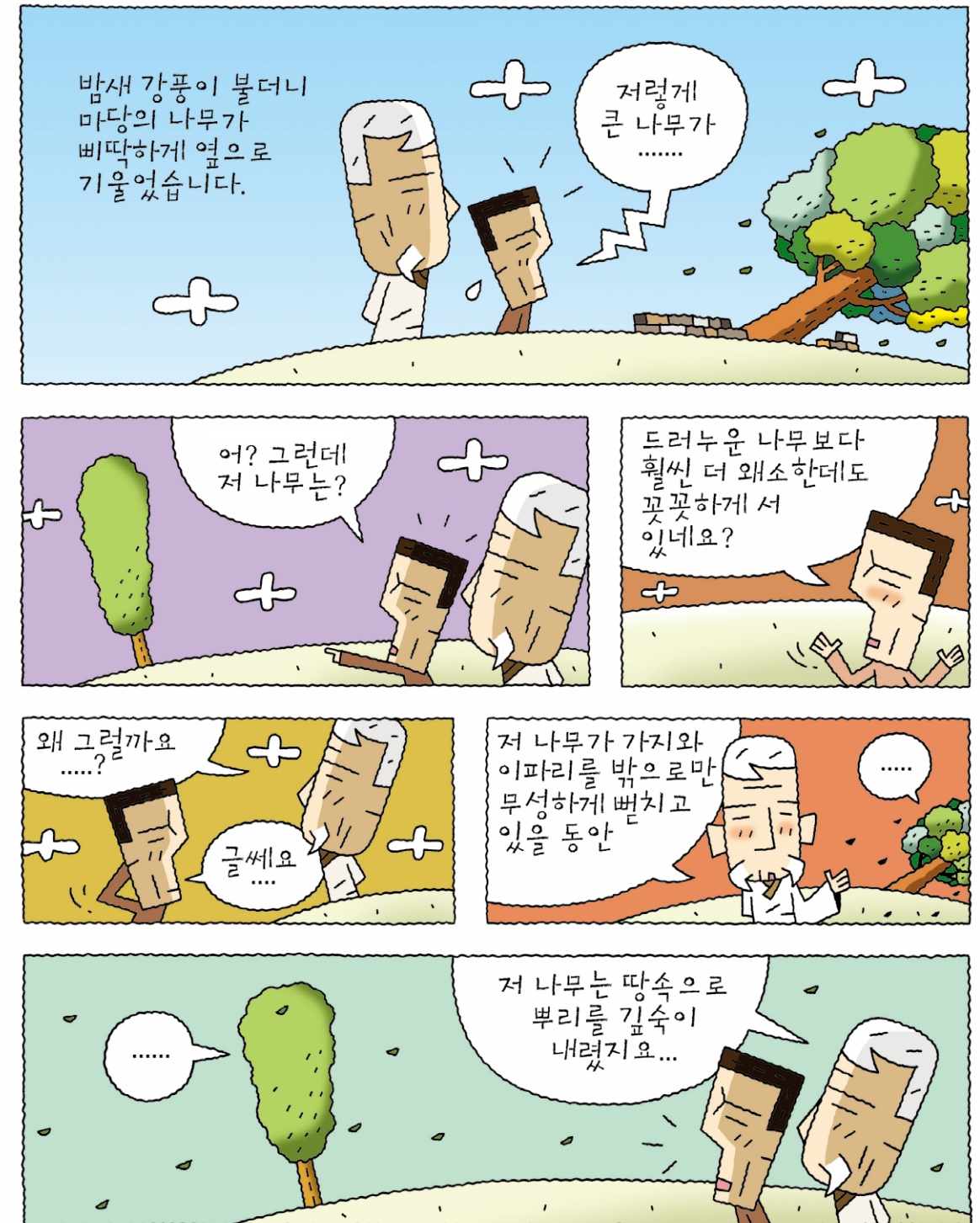
작가는 '작가의 말'에서 "나는 마치 한 사람의 하수인처럼, 밤마다 밤을 새우면서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사람들의 넋이 들려 그들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가라는 대로 내달렸다. 그것은 휘몰이 같았다"고 했다. 작가는 '소신공양하듯' 17년 동안 〈혼불〉을 쓰고 세상을 뜬 것이다.

〈혼불〉의 배경 마을인 남원 노봉마을은 작가의 아버지 고향으로, 작가가 어렸을 적 많이 간 곳이다. 남원시는 노봉마을을 '혼불마을'로 지정하고 이곳에 '혼불문학관'을 지었다.

이 글은 〈혼불〉이라는 거대한 작품을 여뀌라는 작은 야생화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 〈혼불〉에 대한 분석과 글이 많지만 잡초인 여뀌 관점에서 바라본 것은 처음이라 자부심도 갖는다.

글과 사진 · 김민철(조선일보 기자 · 〈문학 속에 핀 꽃들〉 저자)

쓰러지지 않는 나무

글과 그림 · 최영순

허영은 꽃을 피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열매는 맺지 못한다.
– 영국 속담

'국악을 발견하는 여정'이라는 호평을 받아온 작품 '파트 오브 네이처'가 서울 국립극장 무대에 오른다.

"국악의 본질을 보여주다"

국악관현악곡 '파트 오브 네이처'

국립극장 국립국악관현악단의 '파트 오브 네이처'가 다시 국립극장 무대에 오른다. '파트 오브 네이처'는 독일 국적의 한국계 작곡가 정일련이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위촉을 받아 만든 작품이다. 오케스트라와 독주 악기들이 함께 연주하는 합주 연주곡으로 이뤄진 이 공연은 2011년 초연 이후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작곡가 정일련은 다양한 색채와 소리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유럽 무대에서 한국 음악을 알리는 노력을 꾸준히 해 왔다. 그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훌륭한 음악인 국악이 한국에서조차 외면당하는 현실이 늘 안타까웠다"며 "세계 무대에 서면 일본의 가부키에 절대 뒤지지 않을 만한데도 국내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니 해외에 알려질 수가 없었다. 제 음악회를 통해 그런 점을 조금씩 보완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파트 오브 네이처'는 한국 전통 악기의 독특한 개성을 살린 관현악을 만들기 위해 2년 동안의 연구 끝에 탄생한 작품이다. 이번 공연 프로그램은 '파트 오브 네이처'의 6개 악장 중 '출(Birth)' '손(Hand)' '혼(Spirit)' 등 3개 악장으로 구성된다. 또한 이번 공연에서는 창작곡 두 편도 무대에 오른다. 창작곡은 제20회 국립극장 창작공모 당선작인 김대성 작곡의 국악관현악을 위한 '귀천'과 물을 주제로 한 안현정 작곡의 남창정가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흐르고 흐르나니'다. 두 편의 곡은 자연과 인간을 국악관현악 선율에 담은 작품들이다.

'파트 오브 네이처'의 초연을 감상했던 영국의 〈송라인즈 매거진〉 편집장 사이먼 부르튼은 "(이 작품은) 멜로디가 아닌 다채로운 색채와 음색이 돋보인다"며 "매력적인 소리와 음색이 명백한 한국 음악임을 알려준다"고 전했다. 또한 캐나다 '레인포레스트 월드뮤직 페스티벌'의 디렉터를 맡은 랜디 레인 리로쉬는 "국악의 본질을 21세기로 가져온 연주회"라고 평했다. G

글 · 김혜민 기자

기간 11월 29~30일 **장소**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문의** ☎02-2280-4114~6

공연

나무의 숨결展

천안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나무'의 소중함을 되짚어볼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다. 이 전시회는 항상 우리의 곁에 있지만 그 존재에 대해 자주 잊게 되는 '나무'의 소중함과 자연의 놀라움을 다시금 인식하기 위해 기획됐다. 4명의 중견작가들이 참여한 이번 기획전은 회화·사진·조형 등으로 구성됐다. 천안예술의전당 임전배 홍보마케팅팀장은 "기획전은 나무의 소중함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간 12월 1일까지
장소 충남 천안시 천안예술의전당 미술관
문의 ☎ 1566-0155

미국으로 간 조선 악기

국립국악원이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 테마전시실에서 〈120년 만의 귀환, 미국으로 간 조선 악기〉를 선보인다. 이번에 전시되는 악기는 생황, 향피리 등 8점으로 조선 왕실의 악사들이 연주했던 것이다. 관객들은 이번 전시에서 당시의 사진, 기록 등을 통해 '시카고 만국박람회'에 대한 기억을 되짚어볼 수 있다. 19세기 미국 하늘에 울려 퍼졌던 한국 음악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볼 수 있는 기회다.

기간 12월 1일까지
장소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테마전시실
문의 ☎ 02-580-3153

안녕~~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길거리 흡연, 이젠 안녕이라고 말하세요.

첫눈 내리는 날 이육사의 '광야'를 읽는다

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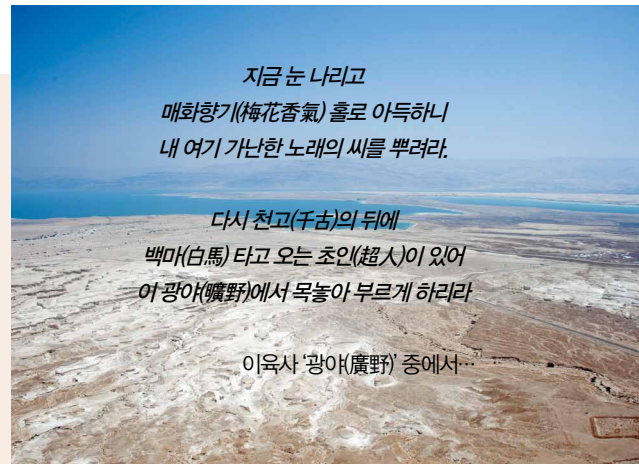
아시다시피 며칠 전 첫눈이 왔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 공간에서는 순식간에 전국 곳곳의 첫눈 소식이 오고갔다. 첫눈이 순식간에 사라지자 다시 설왕설래 말들이 오갔다. 쌓이지 않은 것은 첫눈이 아니다, 이성끼리 보았으니 첫눈이 맞다, 이미 내 마음에는 첫눈이 온 지 오래다……. 인증샷까지 더해지며 '첫눈'을 놓고 오고간 말들은 그날 내린 눈보다 풍요로웠다.

마침 그 시간에 이육사 시인의 시 '광야'를 가르치고 있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자마자 교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묘하게 바뀌었다. 일단 '지금 눈 내리고'에서라는 구절과 딱 맞아떨어지니 좋았다. 하지만 텍스트에 묻혔던 아이들의 눈길이 창문 속으로 빨려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데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래, 지면에 갇힐 필요는 없지, 지금 창으로 보는 눈이야말로 시가 아닌가. 더구나 '광야'를 가르치는 날 눈이 내린 것은 행복이야. 애써 의미를 부여했지만 순식간에 눈이 사라지면서 곤혹스러움은 더해졌다.

눈이 쌓여 있어야 대략 다음과 같이 핵심을 강조할 듯싶었다. 지금 광야를 덮은 눈이 사실은 순식간에 사라질 찰나에 불과하다는 것! 그러니 압도하듯이 광야를 덮은 눈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리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는 오로지 천지창조의 순간부터 다시 천고의 뒤를 꿰뚫을 수 있는 무한한 시간적 상상력, 여기에 누구도 범하지 못하는 순수한 태초의 광야를 떠올릴 수 있는 무한한 공간적 상상력, 이러한 무한한 사고와 감성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

이에 덧붙여 문학적 언어로서 시의 예술적 표현을 감상하게 하려던 나름의 수업 의도는 그 이후로도 눈발이 펑펑 흩날리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창밖의 천변만화와 함께 흔들렸다. 이런!

그날 그래도 결코 놓치지 않은 것이 있었다. 바로 '시 외우기'였다. 시란 지성과 감성의 고밀도 반도체나 마찬가지다. 어렸을 때 훌륭한 시들을 다양하게 많이 접하면, 그래서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으면 어느 순간에 육사의 머리와 가슴속에서처럼 무한 공간과 무한 시간, 무한 사고, 무한 감성이 튀어나오는 법이다.

더구나 수많은 시인들이 우리 시대의 보이지 않는 곳, 미미한 존재들, 앞으로 가야 할 미래, 우리 이웃의 아픔,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 등 그야말로 무한한 삶의 갈피갈피를 정성스럽게 언어로 벼려내는 것이 바로 시. 그러니 시를 읽고, 나아가 외운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맑고 따뜻한 무한 동력을 불어넣어 주는 셈. 도무지 마다할 까닭이 어디 있겠는가.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강요가 되어서 시의 멋과 맛, 힘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그간 시뿐만 아니라 독서교육 전반이 당위성을 내세워 강제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 보면, 어떻게 시에 즐겁게 접근하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열쇠다.

'광야'는 달랑 다섯 문장에 불과하다. 한 문장을 두 번씩 꺾어서 3행으로 만들었으니 모두 15행이다. 앞의 세 문장은 그대로 각각 3연이 되었으며 과거를 노래한다. 네번째 문장은 4연이 되어 현재, 다섯번째 문장은 5연이 되어 미래를 각각 노래한다. 각 연마다 '야'자 각운을 보이기도 한다.

시 외우기라면 지레 겁을 먹어서 그렇지 '광야'처럼 쉬운 시도 사실 없다. 그런 면에서 무한한 공간을 무한한 시간으로 짚어가는 시, 어느새 엄청난 거인으로 만들어 주는 시, 그래서 인간의 삶이란 어떠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해 주는 시가 바로 '광야'다. 다시 눈이 온다면 '광야'의 다섯 문장을, 15행을 분명히 읊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누구보다 먼저 깊이 아파하고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현실과 맞선 육사와 만날 수 있으리라. G

글 · 허병두(서울 숭문고 교사)